

겨자씨.

KWANGSUNG MUSTARD SEED MAGAZINE

거룩한빛
광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2025
AUTUMN
VOL.56

겨자씨 초대석

곽승현 위임목사 · 이미경 사모

모든 세대 · 모든 영혼이 살아가는
광성교회를 꿈꾸며

Issues & Trend 사람과 말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말 습관

오수향(심리소통 전문가)

5인에게 듣다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그 말

마음의 빗갈

정연복

파란 하늘을 보면
기분이 참 좋다

막혔던 가슴이
한순간 뿜 뚫리고

응쫄했던 마음이
쓱 넓어진다.

천년만년
하늘이 푸른빛이듯

내 마음의 바탕색은
연분홍

순한 사랑의
빗갈이면 좋겠다



정연복 시인
· 시인, 번역가, 한국기독교연구소 편집위원
· 저서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읽는 성서』 등 다수

Kwangsung Special
06 사냇가에 심은 나무 장춘옥 생명에 대한 작은 고찰
08 겨자씨 초대석 광승현 위임목사 · 이미경 사모 모든 세대 ·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광성교회를 꿈꾸며
13 2025 선한 사마리아인 맥추절 프로젝트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14 선교지 소식 가브리엘 선교사(NK)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16 희망 RUN 56여전도회 친교 아닌 예배가 최우선인 시니어 전사들
Issues & Trend

19 사람과 말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말 습관 오수향
--

22 5인에게 들다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그 말

꿈꾸는 다음세대
36 꿈담 유아부 성경학교, 가정까지 스며든 하나님 나라
37 꿈담 초등6부 화평의 크루,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38 꿈담 중등부 위십팀, 방송팀, 찬양팀, 예배팀
40 꿈담 고등부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68 HOT ISSUE 김다빈 기다림과 침묵의 순간 속에서
70 Turn on love 조희성 슬기로운 신앙생활 Q&A 신앙인의 건강한 감정과 관계 맺기 <한민 전도사 편>

2025 특별기획

42 한국교회와 여성 ④ 임희국 교회 여성 이야기(1930년대~현재)
--

C O N T E N T S

크로스로드
46 크로스로드 이해님 AI 시대, 교회가 먼저 준비합니다
문화 & 참여마당
74 갤러리 윤민식 사랑
75 우리 교회 뮤지션 김계원(하) 오르간, 웅장한 하나님의 노래
76 명수필 산책 신경림 「장날」 사라져 가는 것들
78 여행 이수인 행주나루와 행주산성
80 독자광장 이준희 124일째, 아들을 그리며
81 독자광장 박양희 우리 교회 7교구 김진우 목사님
82 성경 컬러링 이집트로 간 요셉
84 BOOK AND BOOK



표지 사진
전승한
내장산의 가을

겨자씨.

2025 AUTUMN
VOL.56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5대 비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세웁니다



3대 목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미래 사회와 교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5대 비전

지역사회
문화중심

고양파주
성시본부

한국교회
개혁모델

북한선교
전초기지

세계선교
중심센터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 사회에서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고
고양·파주를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성시화한다.
나아가 한국교회의 개혁 모델이 되고
남한 최북단에서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동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생명에 대한 작은 고찰

글 장춘옥(작가, 새맘출판사대표)

코로나가 터진 때부터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어서 답답했는데, 마침 우리 부부에게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둘 다 엉성한 솜씨의 소유자여도 도전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열망은 사뭇 남다르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열갈이, 열무, 고추, 상추 닦치는 대로 모종과 씨를 가리지 않고 심고 뿌려가며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우리가 틈만 나면 밭에 가서 물을 주고 풀을 뽑고 있을 줄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넷인 우리 가정은 날마다 같이 밥 차려 먹고, 치우고, 청소하고,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것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하루가 돌아갑니다. 그러던 우리 부부가 일상의 루틴이 아닌 일에 도전해보게 된 것은 거의 사건이었지요.

밭에서 캐낸 열무로 김치를 담그던 날이 생각납니다. 농약도 할 줄 모르고, 오직 비료는 발효된 유박 하나만 써가며 여름내 기르던 열무가 싹을 내고 햇빛을 받아가며 자라나더니, 마침내 줄기가 커져서 캐내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날로 우리는 포대 자루에 열무를 담아 집으로 가져와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김치를 담기 위해 열무를 절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지자들에 의해 이 땅에 심어졌고 그 말씀이 전도자들에 의해 흩뿌려졌지만, 그 말씀을 싹 틔우고 자라서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란 것을, 우리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밭을 통해, 나라는 열매가 맺히시기까지 그분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실까요. 저는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시는 대로 그저 아름답게 결실하기만 하면 되는, 아버지를 쫓 빼닮은 농부입니다. 오늘도 텃밭에 배추를 키우기 위해 물을 주러 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 키워보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는 아이 키

우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던 저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학령기) 전까지 거의 80% 이상 두뇌가 형성된다는 것을 배우고 경험으로도 확실히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내어주심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 인공지능을 사람이 창조해냈다고 혹자는 말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인공지능을 훈련하는 것일 뿐, 인공지능은 절대 사람에 의해 창조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사람을 만들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의 알팍한 모방 행위가 그들의 훌륭한 업적으로 둔갑되어서

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진정 생명을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자신과 닮은 인격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잊지 않고, 그분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감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자신이 맡아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알고 우리는 그분의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그분만을 높여 드리는 남은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직 주께 홀로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 “우리 밭에 오이 드시러 오이소!” 할 정도로, 일품의 맛을 자랑하는 우리 밭 진짜 특산물이에요



👉 모종에서 싹이 나오더니 무럭무럭 자라 기대가 컸는데, 막상 남은 건 ‘애개~’ 할 정도뿐이라구요

2025 AUTUMN
Kwangsung Special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24>



곽승현 위임목사·이미경 사모

모든 세대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광성교회를 꿈꾸며

글 임보미기자 사진 전영의기자



☞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함께 동역하다 부부가 된 곽승현 위임목사와 이미경 사모. 서로 닮은 미소에서 26년 동안 한길을 걸어온 동행의 깊이가 느껴진다

풍성한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 가을의 한복판에 찾은 목양실. 가을 햇살처럼 따스한 웃음을 머금은 곽승현 위임목사와 이미경 사모를 만날 수 있었다. 지난 6월 거룩한빛광성교회 2대 위임목사로 6년간의 사역 후 성도들의 재신임을 받아 새로운 2기 사역을 준비하는 곽승현 목사, 그리고 기도로 함께하며 내조하는 이미경 사모에게 목회 사역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난 6년간 시무하시고 성도들의 높은 찬성율로 재신임 받으신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부 이야기해 주셨지만, 재신임의 소회를 나누어 주세요.

교회법으로 정해진 재신임의 기준은 과반수 득표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신임 투표에서 93.26%에 달하는 많은 성도들이 지지해 주신 것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지난 사역들에 대한 성도님들의 응원 의 마음을 확인한 것 같아 감격스럽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지난 6년간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구나.' 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 6년 사역을 마친 광송현 위임목사는 2기 사역을 위한 재선임 투표에서 교인들로부터 93.26%라는 높은 지지를 받았다 »

위임목사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목회 사역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요.

목회 사역에는 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어려움이었기에 정말 앞이 캄캄한 심정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수 없고, 내일은 어떤 제한이 더해질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곳 목양실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때 성령이 깊이 임재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사역에 대한 조급함이 앞섰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배하자.’ 그렇게 유튜브로 ‘40일 원텐텐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어느덧 4,000명을 넘어서며 각 가정에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신뢰가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다른 사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되돌아보니 코로나 기간을 지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시작한 예배와 그로 인해 하나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6년간의 사역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사역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는 무엇인지 성도들과 나누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가정예배를 중심으로 여러 사역이 파생 확장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조이풀 3040 장년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공동체입니다. 2022년, 신혼부부 등 젊은 리더십 커플 10여 가정과 줌 온라인 예배로 시작한 작은 모임이 장작에 불이 붙듯 확산되어 2023년 80가정으로 첫 오프라인 모임이 이루어졌고, 현재 130가정, 400여 명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의 열정이 모이니 제주도, 아프리카 르완다 선교사역 등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 이미경 사모는 광송현 위임목사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까지 세심히 살피며, ‘마더와이즈’와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정’ 등 여성과 가정사역을 통해 성도들에게 따뜻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또 기억나는 것은 다음세대를 위한 ‘꿈담 사역’입니다. 주일학교 공간 부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뿐 아니라 교회학교가 없는 작은 교회의 다음세대를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작은 교회 교회학교 살리기 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사역자를 청빙해 작은 교회에 교육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지금도 꿈담 교육선교사들이 파송된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될 다음세대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시니어 사역’ 또한 힘써 추진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있게 한 아비 세대의 눈물과 수고에 대해 교회가 인정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모임, 시니어예배, 꿈꾸는 정원 공간 확충 등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내조하신 시간이 위임목사님께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 역할은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목사님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온라인 ‘마더와이즈’ 사역입니다. 1기수에 약 100명씩 진행한 사역이 벌써 10기까지 마치게 되었네요. 이 사역을 통해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현명한 아내로, 지혜로운 엄마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여성으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마더와이즈가 해를 거듭하며 기도사역으로 확장되어 올해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정’ 팀이 세워졌고, 말씀과 기도, 교제를 통해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 속에서 살짝 엿볼 수 있는 목사님 가정의 풍경은 참 따스하고 화목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의 소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미경 사모) 서투른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모두 잘 자라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부모와 자녀, 모두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서적인 교감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아이들이길



☞ 세 자녀 지우(딸), 지훈(안경 쓴 청년), 지원(가운데)과 함께한 가족사진. 광승현 위임목사 부부는 3남매에게 ‘코람데오’를 가훈으로 전하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바라는 마음이에요. 주님 안에서 진짜 행복이란,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보람과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에 몰두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신다.’라는 생각에 의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광승현 위임목사) 광성의 많은 성도 가정들처럼 저희 가정도 주일마다 원텐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길지 않게, 딱 10분만 드리는 예배이지요. 때로는 아이들이 각자의 일로 함께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부모가 이 시간에 항상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앞으로의 목회 사역을 계획하시며 개인적인 다짐과 소망이 있으시다면 나누어 주세요.

재신임 이후 저와 아내는 40일간 작정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여쭙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의 6년 사역이 제 목회 인생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년간의 사역이 코로나를 극복하며 도전했던 일들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사역은 당면한 숙제를 풀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간 부족 문제의 해결, 다문화성도를 섬기고 선교사로 양성하는 사역 등 여러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와 모든 영혼이 살아가는 목회’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지지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역하겠습니다.



플로잉데이 Flowing Day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2025 선한 사마리아인 맥추절 프로젝트

거룩한빛광성교회 맥추절 헌금 전액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역

•방법

헌금자가 자신의 맥추절 헌금을 흘려보낼 대상자를 지정

•이렇게 지출했어요

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범위 지정	한부모	해피월드 통해 지원	8,570,000원
	다문화		
	장애인		
	비밀언덕	자립준비청년 지원	22,570,000원
	환우	환우 가정 지원	5,501,000원
	지역교회	지역교회 지원	2,115,000원
교인 지정			13,930,000원
부서, 선교사, 형제교회 지정			3,987,350원
타 교회, 타 교인 지정			11,670,000원
공휴 구제 사역			66,559,500원
합계			134,902,850원

플로잉데이를 통해 맥추절 헌금 전액(1억 3490만 2850원)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흘려 보냈습니다.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New Korea Movement

글 가브리엘 선교사(NK)

한반도의 기독교 역사는 1866년 대동강에 도착한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여러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러 입국했고,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회개를 통한 부흥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10년부터 1945년 광복을 맞을 때까지 한반도는 일본에게 강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광복 이후 유엔은 일본군 무장해제 명목으로 북한에는 소련, 남한에는 미국이 주둔하도록 군사적 분계선을 설정했고, 이후 1950년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반도는 전쟁을 겪었으며, 오늘날까지 분단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긴 역사 속에서 외세가 끊임없이 노리는 땅이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때 한반도는 지리학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땅이라 생각합니다. 영토를 놓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필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조차 치열

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길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한반도를 전 세계를 복음으로 축복하는 나라로 사용하시려고 한다고 믿습니다. 그 증거는 반쪽짜리 남한 땅에서 일어난 교회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에 오른 것입니다. (현재는 브라질과 2위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남한을 가리켜 세계 교회들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은 주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사건이었다고 믿습니다. 지금 복음은 다시 북쪽을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남한의 교회들과 세계의 교회들은 남한에서 꽃피운 복음이 북쪽을 향하여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와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한반도를 경험할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유롭게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땅이기에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의 지혜를 따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병원, 학교, 고아원, 양로원 등을 건립하고 식량,약품, 학용품, 식수 개선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문화와 스포츠 교류를 통해 만남의 통로를 계속해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으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물 시추 공사 현장 식탁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던 관리자들이 묻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한 내용을 조심스럽게 알려줍니다.

사역자 한 분은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는 현지인들에게 자신은 암에 걸려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기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는데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함께 앉아 있던 현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차분할 수 있으며, 신에 대한 믿음은 없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느냐?”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신다면, 당신을 꼭 살려 주셔야 한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불러와야 한다. 당신이 살아서 다시 오면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고, 당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당신의 하나님은 없거나 나쁜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역자는 답했습니다.



☞ 고아원에 시추된 우물의 물을 시음 중인 어린이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감사합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몇 년 뒤, 그분은 암에서 치유되어 다시 그 땅을 밟았습니다. 현지인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우리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당신을 살려 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하며 “당신이 살아온 것을 보니,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봐요.”라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이 막혀 있는 곳이라도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더욱 자세히 주님께 대해, 그리고 그때의 사건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전해 줄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국제 정세로 인해 국경이 다시 막혔습니다. 거대한 문에 가로막힌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그 땅의 묶임을 풀어 주시기를, 그 땅의 가난한 영혼들이 인생의 주인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 문화 스포츠 교류의 일환으로 현지 바닷가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서핑을 가르치는 외국인 사역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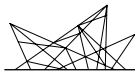
☞ 비판에만 익숙한 현지 종업원에게 사역팀이 방문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와 칭찬, 축복의 말을 전하는 모습



☞ 주 식량인 곡식을 현지 사역지까지 전하고 확인한 사역팀의 모습



☞ 우물 시추 기계 작동법을 현지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공사 현장



친교 아닌 예배가 최우선인 시니어 전사들 56여전도회

글 전영숙 기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56여전도회의
행보에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벗어나 늘 새로움이 넘친다.

나이 지긋한 70세 할머니의 고상함을 기대했다면 놀라 자빠질지도 모른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멈출 줄 모르는 추진력으로 회원들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은실 회장과 염문자 총무를 만나 보았다.



☞ 70 평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예배로 고회의 기쁨을 나누는 56여전도회원들과 함께한 목사님들



☞ 오락가락하는 날씨 가운데서도 보라색 모자로 하나됨을 뽐내며 12사도길 여행 내내 웃음꽃이 만발했다



☞ 날씨만큼이나 화사한 56여전도회의 제주 여행은 찬양이 흘러넘쳤다

카페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요란하다. 단 둘뿐인데도 왁자지껄함이 여고생 못지않다. 그 틈새에 기자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게 된다. “지금 남아 있는 56여전도회원은 19명이에요. 살아온 세월만큼 개성이 강하지만, 스스로 식일 줄 알면서 잘 융합해 가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들고나는 것이 있긴 했지만, 25년 지기 친구인 셈이죠. 우리는 그 누구의 의견도 소홀히 하지 않거든요.”

56여전도회는 ‘전 회원의 임원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 실행에 옮기니 불만이 없다. 솔직히 교회 행정조직 상 56여전도회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만 68세가 되면 여전도회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속감이 사라지자 오히려 같은 목표를 향한 신앙인으로 함께하게 되면서, 예배가 우선인 모임으로 바뀌었다.

“그전부터 함께 여행을 하긴 했는데, 작년 봄 70을 바라보며 마음에 ‘혁신’을 불어넣고 싶어 신안 12사도길을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요.”

출발부터 찬양과 기도로 시작된 12사도길 여행은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기쁨이 넘쳤다. 차량 고장으로 3시간을 꼼짝 못한 순간엔 함께 간 여행사 대표의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 가득한 시간으로 바뀌었다. 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고회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의견이 모아져 ‘56여전도회 고회연’을 소박하게 준비하려 했는데 가족 모임보다는 감사예배로 드리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위임목사님을 모시는 데까지 발전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입을까 싶어 모두 새하얀 드레스를 입기로 하고, 장식까지 힘을 합쳐 멋지게 준비했다. 세상적 흥거움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그녀들의 고회는 목사님들의 축복 속에 70 평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예배로 특별함을 더했다. “우리 56여전도회가 연합이 잘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도와 예배예요. 월 1회 모임을 갖는데,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오전에는 예배와 중보기도로, 점심 후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나눔과 교제가 이어져요.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간증이 되는 거죠.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두 기도 제목을 내려고 앞다투어 모임에 나와요.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절대 빠지지 않아요. 세상 모임을 다 끊을 정도라니까요.”

이 회장과 염 총무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바로 회원들 때문이다. 추진력이 있어도 받쳐 주지 않으면 안 되고, 받쳐 줘도 추진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손발이 척척 맞는다. ‘선하고 좋은 것’을 행하고 유익하니까 잘 따르는 게 아닌가 싶단다. 회원들에게 ‘56여전도회가 어떤 의미냐?’고 물었더니, ‘믿음의 동반자(동역자)’, ‘보약 같은 존재’, ‘땀밭 같은 친구’, ‘친교와 중보로 하나 된 벗님들’이라는 등 다양한 답이 쏟아졌다. 기도의 힘으로 응집된 그 에너지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듯했다. 각 부서와 위원회마다 섬김의 부족으로 애를 태우는 요즘, 서로 나서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56여전도회의 열정과 거침없는 행보는 시니어 봉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찬양하기를 좋아해 연합예배 때 봉헌송을 드린 것뿐인데, 반응이 너무 좋아 여기저기서 요청이 쇄도하니 회원들 체력 보강에도 신경 쓰고 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지문이 새겨진 삶을 살아온 56여전도회. 그들이 체득한 하나님을 찬양과 기도로 더욱 크게 외치는 소리가 종교인으로 머물며 잠자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도전과 울림으로 전해지길 기대한다.



☞ 봉헌송을 시작한 이후 각 예배와 모임에서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꾸준히 체력을 키우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말 습관 질문(Q)×칭찬(P)×리액션(R) *Question Praise Reaction*

글 오수향(심리소통 전문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말에 씨가 있다.’ 서양 속담에는 또 이런 말도 있다. ‘말은 인류가 사용한 가장 효력 있는 약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좋은 의미로 한 말도 오해를 사기도 한다. 말 한마디도 깊이 생각하고 조심히 해야 하는 이유이다.

말은 인류가 사용한 가장 효력 있는 약이다

말에는 씨가 있어 표현하고 의지를 세우면 그리 이루어진다고 한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 구체화되고 의지를 세우게 되어 이루어지는 이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대화법은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서 해도 좋은 말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일방적인 대화는 불평과 갈등을 야기하기 쉽다. 특히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하대하고 일방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거나 부모라는 이유로 강압적인 말투로 자녀를 억압하는 대화를 하는 것은 상호 존중 대화법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

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상생하는 올바른 대화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소통(C)=질문(Q)×칭찬(P)×리액션(R)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말 습관 노하우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럴 때마다 소통 3단계를 답으로 제시한다. 1단계: 질문(Question), 2단계: 칭찬(Praise), 3단계: 리액션(Reaction)이 그것이다. 1단계 질문(Question)은 인간관계 소통의 시작이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는 대화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김 대리, 어머님 편찮으시다며 지금은 좀 어떠셔?”,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아들, 오늘 급식 뭐 먹었어?”, “여보! 오늘 많이 추웠지? 올 때 차 안 막혔어?” 등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다.

카네기의 자기 계발 이론에 큰 영향을 준 알프레드 아들러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질문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며 타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 인간이 겪는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로 부터 발생한다.” 즉 관심을 알리고 표현하는 첫 단계가 바로 질

I

사람과 말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말 습관
질문(Q)×칭찬(P)×리액션(R)

글 오수향

II

5인에게 듣다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그 말

문하는 것이고, 질문할 때 필요한 것은 화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관계의 문을 여는 긍정의 말 습관, '칭찬'

성공적인 대화법의 2단계는 바로 칭찬(Praise)이다. 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를 보면, 멋진 쇼를 연출하기 위한 범고래의 최고 훈련법은 칭찬이다. 조련사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잦은 실수를 하는 범고래에게 질책 대신 잘한 점에 초점을 맞춰 격려와 칭찬을 건넨다. 이렇게 함으로써 범고래와 조련사는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범고래는 최상의 쇼를 선보이게 된다.

칭찬은 특히 사람에게 즉각적이면서 강력한 효과를 낸다. 칭찬을 할 때는 “눈썹이 짙으시네요.”, “피부가 아기 같아요.”처럼 상대방의 외모적 장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효과가 높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하고 있는 넥타이, 셔츠, 안경, 구두 등을 가리키면서 칭찬을 하는 것도 좋다. 또한 그 사람의 성품, 성격, 태도 등을 칭찬하는 것은 ‘격’ 있는 칭찬이 될 수 있다.

필자에게도 인생을 좌우한 칭찬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항상 해주시던 “우리 딸은 기본 좋게 말을 참 잘하네.”이다. 여러 가지 시련을 극복하고 대화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말에서 칭찬의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의 “말도 잘하고 목소리 참 듣기 좋다.”라는 칭찬이었다. 선생님의 따뜻하고 힘 있는 말 한마디로 꿈을 키워갈 수 있었다.

나를 위한 칭찬, 긍정적인 대화를 이끄는 에너지

남을 위한 칭찬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긍정의 에너지를 준다. “지금 잘하고 있어.”, “점점 나아지고 있어.”,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장하다.” 등 나를 위한 칭찬 또한 자기만족과 자기 계발을 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 다수의 권위 있는 연구 기관에서 셀프 칭찬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일을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에너지를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칭찬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칭찬을 듣게 되면 뇌에서 긍정적 호르몬을 배출하게 된다. 직장 내에서도 서로에 대한 칭찬과 자기 칭찬(셀프 칭찬)을 많이 할수록 사기가 더 높아진다

는 연구 사례가 있다. 긍정적인 말은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많이 배출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반면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정신적 내상을 입힌다.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되자

마지막 3단계는 바로 리액션(reaction)이다. 토크계의 전설 래리 킹이 말한 대화의 첫 규칙도 바로 리액션이다. 필자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방청객 리액션’이라고도 한다. 상대방의 말에 “음~”, “아~”, “오~~” 등의 리액션을 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으며 그 의견에 수긍하고 있다는 표현이 된다. 여기에 “네, 그렇군요.”, “그런 게 있었군요.”, “그리하면 더 좋겠군요.” 등의 리액션도 좋은 사례이다.

리액션은 상대방의 말에 대한 공감의 표현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말로 “아, 정말요?”의 맞장구도 들 수 있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이렇게 반응해주는 상대가 있다면 그와 더 오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싶지 않을까?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칼에 베인 상처는 사라지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라는 말처럼 말이다. 특히 매일 함께하는 가족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부부 관계에서 주변의 남편이나 아내와 비교하며 불평불만을 시작하면 급기야 “당신 이랑 결혼한 것 자체가 후회돼.”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주고받으며 싸움으로 이어진다. 결혼생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온통 부정하는 말은 마음 한편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긍정적인 대화법이 중요하다. 상사가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귀찮은 업무나 어려운 업무를 지시했을 때, “아니요, 저는 못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단번에 거절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 입장을 바꿔 내가 상사의 입장이라도 단박에 거절하는 직원보다는 열심히 해보겠다는 부하 직원이 더 예뻐 보이지 않겠는가. 지시를 받은 업무가 생각처럼 안 풀리더라도 상사에게 이러한 노력을 했지만 안 되었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대화에 있어서는 이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성공적인 대화에 있어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불만을 마음에 담지 말고 말로 표현하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탓하며 마음속에 불만을 쌓아 두지 말고 객관적인 이유를 들어 말하는 것이 좋다. 직장 상사가 유독 퇴근 시간에 회의를 자주 한다면 “회의를 하고 나면 안건을 처리할 시간이 늦어지니 회의 시간을 좀 앞당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당신이 무시하면서 말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상해. 다음부터 그 말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해보는 거다. 묵혀 두지 말고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포인트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말하기

상대방의 의견에 100% 순응할 수 없다면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대화법도 좋은 스킬이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반대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불평을 드러낸다면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 그렇다고 완전히 소통을 단절하는 것은 더욱 좋지 않은 방법이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군요.”라고 부분적으로 상대방의 견해를 인정한 후,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서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을수록 의견이나 가치관이 다를 때 비난하고 지적하는 말을 하기 쉽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자신이

한 일이나 행동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당신은...’으로 시작하는, 상대방이 변화하고 고쳐주었으면 하는 기대로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말 하기 방식은 말하는 사람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진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반대로 ‘나는...’으로 시작되는 말하기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제 나로부터의 대화법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자신의 표현 방법부터 바꾸자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 또 무슨 일을 해도 잘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잘 풀리고 누구는 자꾸 꼬여만 간다. ‘말에 씨가 있다.’는 말처럼 칭찬, 축하,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의 힘이 만들어지고, 질투, 시기, 미움의 말을 하는 사람은 화만 쌓여 간다. 직장 동료·선후배 사이든, 가장 허물없는 부부 사이든, 피를 나눈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관계를 좋게 만드는 대화 스킬이 있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계에 있어 항상 같은 문제로 부딪히기보다는 자신의 표현 방법부터 바뀌보는 것은 어떨까? 따뜻한 대화를 통해 자신부터 다정다감하고 믿음 가는 동료, 배우자, 자녀가 된다면 주변에는 믿음과 공감이 쌓여 가게 될 것이고, 인간관계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5인에게 듣다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그 말

“같이 놀자.”



저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말은 아버지의 “같이 놀자.”였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그때처럼 다정한 “같이 놀자.”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놀고 싶는데 아버지는 항상 바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놀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고 하시면, “같이 놀아주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수혁(초등5)

“너는 아들보다 더중한 딸이여.”

나는 남아선호의 풍습이 강했던 남서해의 작은 섬, 도초도에서 태어났다. 그 때문에 대가족의 품 안에서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자라지 못했다. 그러나 이웃 섬 비금도에서 태어나 도초도로 시집오신 엄마는 달랐다. 지독한 남아선호의 환경 속에서 자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큰딸인 나를 지지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다. “너는 아들보다 더중한 딸이여.” 돌아보면, 지금의 나를 일으켜 세운 힘은 대부분 엄마의 든든하고 포근하며 흔들림 없는 그 지지였다고 믿는다.

박경희 권사



친정어머니와 함께

“농담 같았지만, 진심처럼 다가온 고백”



함께 일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형님이 계십니다. 언젠가 그 형님 소개로 손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손님께서 두 사람 사이가 무척 좋아 보인다고 형님께 “두 분은 어떤 사이입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형님이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이 동생을 위해 제 목숨이 필요하다면 즉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뜻밖의 대답에 모두 웃으며 농담처럼 지나갔지만, 그 순간이 제 마음에는 깊이 남았습니다. 그 형님의 진심은 주님만 아시겠지만, 저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는 말은 지금까지도 제게 가장 소중한 의미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구성록 집사

“내 삶을 따뜻하게 한 남편의 말”

아침부터 이유도 없이 짜증이 밀려왔다. 아침 인사를 나누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결국 짜증을 쏟아내고 말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은 조금 후련했지만, 마음 한 켠에는 미안함이 스며들었다. 그런데 오후, 카톡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날아왔다. 순식간에 감동의 파도가 밀려왔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 ♥ 어여쁜 외모, 여왕 같은 포스!
- ♥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믿고 사랑해 준다.
- ♥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곁에서 지켜준다.
- ♥ 음식 솜씨로 나를 행복하게 해 준다.
- ♥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
- ♥ 나 같은 남자와 결혼해 준 구세주!
- ♥ 사리 판단이 뛰어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 ♥ 풍요로운 인맥으로 든든히 내조한다.
- ♥ 아이들을 건강하게 길러 준다. 물론 나까지 포함해서!
- ♥ 눈물이 많아 더 사랑스럽고 여자답다.
- ♥ 나와 친구 같기도, 여인 같기도 하다.
- ♥ 언제나 앞을 보고 달릴 비전을 제시한다.
- ♥ 지금도 내 옆에서 방귀조차 못 뀌 만큼 나를 사랑한다.
- ♥ 우리는 함께 살아가며 느낀다.



메시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다.

“사랑하는 여보, 힘들어하지 마. 때론 베이스처럼 잔잔한 삶도, 소프라노처럼 높고 아름다운 삶도 있는 거야. 항상 내 옆에 당신이 있다는 게 행복이야. 사랑해, 너무나 사랑해!”

나는 휴대폰을 꼭 껐안고 속삭였다.

“여보~~~ 나도 행복해. 난 이렇게 사랑받고 산다.”

김미영 권사

“사랑한다, 딸” 이 한 마디!

제 이름의 의미는 ‘사랑하는 여자’ 예요. 이름에 ‘사랑’이 담겨 있지만, 사랑받는다는 확신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아유, 우리 예쁜 딸, 어서 와.” 하시는데 제 안에서는 오히려 거부감이 일어났습니다. 엄하시고 칭찬이 없으셨던 아버지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기독교 방송에서 ‘아버지 사랑’이라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안 사랑하시죠?”

여쭙었더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애녀’라고 이름 지었잖니.”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에 눈물이 쏟아지고, 처음으로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아버지의 사랑, 가족의 사랑, 교회 안의 사랑 속에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들요.

이제는 사도 요한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전애녀 권사

한 걸음씩 열 번 질병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글 김은하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파송선교사, 은혜의빛광성교회 청년부)



꿈의 성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련

2018년 8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드디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5년간의 긴 학업 과정을 마무리하는 감사하고 기쁜 날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박사가 뭐길래?’라는 의구심이 밀려왔다. 그 이유는 이 학위가 평생의 건강과 맞바꾼 결과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지면을 통해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질병과 함께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나누고자 한다.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새벽, 잠에서 깨어난 나는 거울 속에서 아름다운 쌍꺼풀을 발견했다. “우와~ 내 눈이 예뻐졌네.” 흐뭇해했지만, 이내 입술이 비뚤어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안면 마비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이 상황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모든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어릴 적부터 감기도 잘 안 걸리는 건강 체질이였기에, 이 고난도 곧 끝날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교회에 병가를 내고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집중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몸은 나날이 힘들어졌다.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져나가 금세 쓰러져 누워 있어야 했고, 눈꺼풀을 들어 올릴 힘조차 없었다. 정신적으로는 전화벨 소리를 듣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신경이 예민했고, 육체적으로는 매일 침 치료를 받으러 한의원에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좌절할 수 없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날 수 있어. 사고는 수습하면 되는 거지, 곱씹으며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치료와 학업에 전념했다.

논문 지도 교수님은 “지금은 건강이 중요하니, 논문을 다음 학기나 완치 후로 미루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지만, 나는 “아니요, 저는 지금 멈추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논문을 진행하고 싶습니다.”라며 의지를 굳혔다.

그랬더니 교수님은 “내가 제자의 논문을 지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다.

박사 후 백수의 현실

인고의 세월 끝에, 2018년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 논문이 끝나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날 줄 알았지만, 내가 마주한 현실은 ‘백수’였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책과 씨름하던 일상이 멈추자, 갑자기 목표를 잃은 사람처럼 허탈했다. 건강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강의 기회는 없었으며, 교회 파트타임 사역 이외의 수입이 없어 생활고까지 찾아왔다. 게다가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져 돌봄이 필요한 일도 많아졌다.

그럼에도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열 걸음을 가면 나는 한 걸음씩 열 번을 가면 되고, 다른 사람이 달려가면 나는 포기하지 않고 걸어서 오래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천천히, 뚝뚝뚝, 멈추지 않고 내 길을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큰 힘과 용기를 주었다. 주변 친구들은 내 질병을 함부로 판단하

✎ 저서



거나 배제하지 않았다. “왜 너에게 그런 일이?”라는 선부른 신앙적 판단이나 동정 대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함께 동행하며 내 걸음을 응원해 주었다.

질병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여정

그렇게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간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일을 성취했다.

2020년부터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객원교수, 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과 강사로 사역하고 있다. 2022년 세계선교학회(호주) 학술발표, 칼스루헤 세계교회협의회 강연, 2023년 필리핀 드라살대학교 아시아 국제학술대회 발표, 2024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세계교부학회 발표 등을 진행하며,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출판하여 국제적인 학자로서의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다.

2020년부터 꾸준히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다. 안양소년분류심사원, 서울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고봉중고등학교), 대전소년원, 소망교도소 등 다양한 교정시설에서 지혜롭고 행복한 삶에 대한 융복합적 인문학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이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공동체에 전하는 감사와 사랑

이처럼 내가 질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거룩한빛광성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다. 정성진 목사님과 광승현 목사님께서 대를 이어 나의 작은 학문적



1 2022년 독일 발표 2 2022년 힐데가르트 수녀원 강의 3 국제학술대회발표

성취에도 크게 기뻐하시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동역했던 어린이 영어예배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은 나의 사랑의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은혜의빛광성교회 장동훈 목사님과 청년부에도 감사드린다. 그 외에도 많은 성도님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나는 오늘도 또 다른 하루를 살아낸다.

아직까지도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л 하나님을 기대하며, 희망의 한 걸음을 내딛는다.

✎ 여성 목회자들



새가족위원회 환영팀 & 양육팀

글 최은우 학생기자 사진 이종수 청년기자

환영팀

1. 환영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새가족환영팀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교회 생활을 안내하고, 새가족이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의 등록카드 작성을 도와드리며, 예배 후 본당 1층 새가족환영실에서 위임목사님과 교구 목사님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2. 환영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에 온 새가족이 가장 먼저 만나는 부서가 환영팀입니다. 때문에 새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친절할 미소와 태도, 열린 마음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환영팀은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새가족 등록을 안내하는데 다른 어떤 부서보다 봉사 시간이 길지만, 그만큼 사랑을 전할 기회도 많습니다. 사도행전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 팀원들도 봉사를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여기며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3. 새가족이 성도로서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매주 평균 5~10가정이 새로 등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새가족 등록이 없었던 주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큰 은혜요 영광이지만, 특히 새가족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기쁘게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 깊이 감사가 솟아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한 몸 된 공동체임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4. 환영팀의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등록 절차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새가족의 배경과 상황, 그리고 마음속 고민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며, 그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따뜻한 소속감과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화목한 새가족환영팀 단체사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방에서 새가족분들과 위임목사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며 기도를 드린다
2. 위임목사님과 함께 새가족분들을 맞이하는 새가족환영팀

양육팀



« 양육팀의 교육은 기본적인 '아멘'의 의미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무엇인지 등등의 설명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리 교육을 통해 새가족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1. 양육팀은 무슨 일을 하나요?

양육팀은 주로 새가족을 교육하는데요, 첫 주는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 둘째 주는 성경과 예배, 셋째 주는 기도와 찬송, 넷째 주는 믿음, 헌금 그리고 봉사를 주제로 신앙생활의 기본을 교육합니다. 또 새가족에게 매주 전화와 문자로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또 오병이 어팀에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으로 식탁 교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양육팀만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고충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새가족의 신앙 연륜은 다양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처럼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때문에 저희 팀은 매주 모여, 어떤 방식과 내용이 실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지 기도하며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장소의 협소함입니다. 예전에는 교육 대상자가 너무 많아 봉사자들이 밖에서 대기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고 여유 있게 교육과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 양육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과 은혜가 있나요?

교육 내용이 신앙의 기초이다 보니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 특히 직분자들의 경우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참여하셨다가 오히려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저희를 격려해 주실 때마다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장로님은 사위와 함께, 또 사위는 장모님을 모시고 4주 과정을 모두 수료하셨고, 어느 집사님은 첫 주에는 혼자 오셨다가, 다음 주부터 부인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또 한 남자 집사님은 “다른 교회에는 없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이처럼 칭찬과 격려의 말,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훈훈한 모습을 만날 때마다 저희는 사역의 큰 보람과 은혜를 새삼 느낍니다.

4.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 양육팀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모든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양육팀은 앞으로도 겸손과 사랑으로 새가족을 맞이하며, 교육을 준비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리 교육 중

3040 조이폴 장년부, 르완다 비전트립

뜨겁게 예배하고, 은혜를 남기다

르완다 11박 12일

글 우주희 기자

물의 근원은 갈아도 받은 물을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생명력이 풍성하지만,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 주변에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조이폴도 흘려보냄으로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2023년부터 해외선교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열두 가정, 총 41명이 머나먼 아프리카 르완다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초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우간다와 잠비아를 방문하여 아프리카 선교의 시작점을 짚었다면, 조이폴에서는 르완다를 방문하여 아프리카 선교의 지경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8월 7일 카요부 예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자유롭고 뜨거웠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우르르 몰려 나와 손뼉을 치고, 몸을 흔들며 주님 앞에서 마음껏 뛰노는 모습은 대한민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예배이자 축제인 그 열기 가득한 현장 속에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8월 8일 가코메 염소 분양

염소는 단순한 선물이라, 가정의 자립과 생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귀한 자산입니다. 염소를 받은 가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달된 염소가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의 증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8월 9일 키니히라 환영식

끝없이 펼쳐진 차밭을 지나 세 시간 만에 도착한 해발 2,500m의 산꼭대기 마을.

버스에서 미처 내리기도 전에 그들의 환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끈 두 줄을 머리에 두르고 빨간 옷 위에 흰 천을 두른 그들은 아프리카 전통 춤으로 우리를 맞이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오며 그들을 만나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들도 오랜 시간 우리를 기다리며 만남을 고대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갔기에 누릴 수 있는 환영이었으며,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환대였습니다.



8월 9일 키니히라 찬양과 기도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찬양과 율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으신 하나님’을 현지어로 “임마나니 은지자”라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또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우리는 한국어로, 그들은 현지어로 부르자 같은 곡조, 다른 언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찬양이 예배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언젠가 저 천국에서 모든 민족과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할 그 날의 모습을 미리 보는 듯했습니다.

8월 11일 루샤키 Praise 워십

사역지 가운데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루샤키도 키니히라와 같이 산꼭대기 마을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펼쳐진 산과 계곡의 지형을 보며, 선교팀의 워십곡인 Praise의 가사를 떠올렸습니다.

‘깊은 계곡에서도, 높은 산에서도 주를 찬양하리!’

워십 중 산을 만들었던 동작 사진입니다. 이곳 루샤키에서 울려 퍼진 주를 향한 찬양이 온 세계 위로 퍼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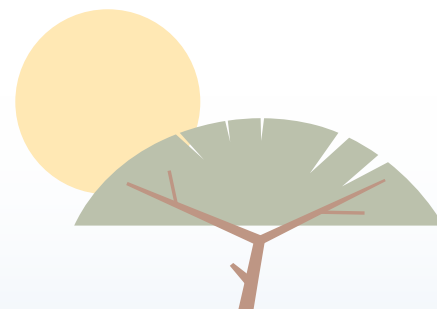
8월 12일 비분고 Everything 스킷드라마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담은 드라마 Everything을 선보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표정과 몸짓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졌고, 성도들의 눈빛에서도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역지인 비분고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던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마침내 물리치실 때, 박수갈채와 함께 할렐루야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3월 첫 모임 이후 오랜 시간 모여 준비하고 다녀온 지난 11박 12일의 여정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가는 곳마다 큰 은혜를 누렸는데, 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자유롭고 뜨겁게 예배하던 그들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우리를 도구 삼아 그 땅의 영혼을 세운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와 보니 선교를 도구 삼아 우리 각 사람의 영혼과 가정을 세워가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을 주러 간다고 여겼지만, 오히려 사랑을 받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설이 아름답습니다. 기도로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의 사랑에도 큰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의 선교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에 지나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르완다 땅이 그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5 주니어쥬빌리 통일캠프 4인의 생생한 간증



다음세대를 세우는 은혜의 자리

글 최종희 집사(통일선교자원팀 팀장)



주니어쥬빌리 통일캠프는 2014년부터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에서 주최해 온 청소년 통일사역 행사입니다. 매년 여름,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3박 4일 동안 4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며, 통일을 미리 경험하고 복음 통일의 소명을 배웁니다.

참가 학생들은 장기자랑과 코스 게임을 통해 협력과 연합을 배우고, 북한과 통일 후 사회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고, 다양한 선택 특강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과 통일 소명 등을 배웁니다. 올해는 조정호 목사님이 ‘청소년 통일교육’을 진행하여 복음통일의 중요성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집회는 저녁 7시부터 밤 12시가 넘도록 찬양과 말씀,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지며, 많은 학생이 성령 충만한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올해 캠프에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난소종양 등의 병 고침과 영적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자녀들과 함께 캠프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준비된 다음세대 통일 리더들을 찾고 계심을 느껴왔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며, 우리 거룩한빛광성교회가 통일의 주역을 준비하는 전초기지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이자 축제인 그 열기 가득한 현장 속에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주신 음성

글 이한송(중2, 새빛유니찬양단 리더)

저는 이번 수련회에 가기 전부터 ‘믿음’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교회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이상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실 비전을 꼭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되고, 개회예배에서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저 단 둘만 있는 것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모든 고민과 감정을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루가 금세 지나가고, 저녁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간증을 정리하며 돌아보니, 주니어쥬빌리 통일캠프는 제게 정말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 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 캠프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주저 없이 “꼭 가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라진 6cm 혹,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글 이다은(초6, 새빛유니찬양단 상어)



저는 7월 초부터 화장실에 자주 가고, 오른쪽 골반이 심하게 아파 7월 30일 집 앞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오른쪽 난소에 약 6cm 크기의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리에 힘이 풀리고 발 색깔이 변하며 저림 증상까지 나타나 서울대병원 아동응급실로 가서 CT를 찍고, 8월 5일 소아부인과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8월 4일부터 7일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주니어쥬빌리 통일캠프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진료와 캠프를 모두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엄마의 수고로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8월 5일 서울대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8월 8일에 결과를 듣기로 한 뒤 다시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혹이 꼬일 위험이 있다며 절대로 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녁 집회 때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 저도 모르게 신나게 뛰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제 난소에 있던 6cm의 큰 혹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병에서 해방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13살인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직접 체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경험했기에, 저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이들을 품으며 배운 사랑

글 김성준(청년부, 캠프 스태프 봉사 참여)

2024년 고3 때, 입시와 진로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던 저에게 주니어쥬빌리 통일캠프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을 심어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와 같은 마음으로 참석한 후배들을 섬기고자 2025 주니어쥬빌리 통일캠프에 참여했습니다.

낮에는 올해 처음 신설된 초등부 ‘이스라엘 조’를 맡아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기숙사 불침번을 서며 봉사했습니다. 힘이 드니까 처음의 생각과는 달리 아이들을 인솔하면서 솔직히 화가 날 때도 있었고, 짜증 섞인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를 사랑과 헌신으로 인도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잠시 시험에 들었지만 다시 아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2명의 초등부 아이들을 인솔하며, 어느 순간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린 시절 제 모습을 보는 듯한 마음이 들어 진심으로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캠프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은혜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가르치고 섬겨주신 선생님들의 길을 이제 저도 따라 걷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2025 국내선교 연천 노곡교회에서 무박 2일 농촌 봉사 및 복음전도 사역 진행

글 봉영일 집사(국내선교위원장)



노곡교회, 71년 만에 간판 새로이

그동안 노곡교회는 마을 초입에서도 쉽게 눈에 띄는 교회 간판이 없어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 농촌 봉사 사역을 계기로 시인성이 뛰어난 새로운 교회 간판이 설치되었다. 새 간판이 세워진 모습을 본 노곡교회 성도들은 감격의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오랜 시간 기다려온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연천 노곡교회로

우리 교회는 매년 여름, 농촌 지역의 교회를 선정하여 무박 2일 일정으로 의료, 미용, 노후주택 방충망 교체 및 실내조명 개량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함께 복음전도 사역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에 위치한 노곡교회(담임: 김만석 목사)를 방문하여 7월 28일에는 100명, 29일에는 142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954년에 개척된 노곡교회는 올해로 창립 71주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농촌 교회로, 현 김만석 목사가 부임한 이후 성도 수가 기존 45명에서 70여 명으로 성장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는 교회이다.



영양수액과 함께 전해진 생명의 복음

또한 이번 의료 봉사에서는 마을 주민 148명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문진을 하고 영양수액 주사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3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중 무려 21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귀한 영혼 구원의 역사에 함께한 모든 봉사자들과 성도들은 깊이 감동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마을 주민과 함께한 따뜻한 초대 만찬

마을 주민 약 100여 명이 초대 만찬에 참석하여 함께 식사하는 기쁨을 나눴다. 따뜻한 마음과 웃음이 가득한 자리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동체의 사랑을 깊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24가구에 방충망 교체

28명의 봉사자들이 4개 조로 나뉘어, 노곡리 마을의 24가구를 방문해 노후된 방충망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삶의 작은 불편함을 덜어주는 손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았으며, 전도위원회 소속 전도자들이 함께하여 복음의 메시지도 전했다. 창문이 새로워진 각 집마다 맑은 바람과 함께 복음의 기쁨도 스며들기를 바란다.



전도의 열매, 영접의 감동

마을 전도사역 중, 한 주민이 전해진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의 순간이 있었다. 조심스레 두 손을 모으고,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영접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함께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잊지 못할 은혜로 남았다.



네팔 청년

우리나라에 온 지 2주일 된 한 네팔 청년 노동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먼 나라에서 이 땅으로 부르신 그 영혼 위에 앞으로 은혜가 이어지기를 다 함께 기도했다.



사랑을 담은 가위질

농촌 마을 선교 사역 가운데, 주민들이 가장 반가워하는 것 중 하나는 미용이다. 이번에도 거룩한빛광성교회 미용선교팀의 가위손은 빛을 났다. 커트 37명, 염색 7명, 파마 43명 등 총 87명의 마을 주민이 머리 손질을 받았다.



여름 사역을 마치며

생애 가장 더운 날이었지만, 동시에 생애 가장 복된 날이기도 한 여름 사역.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으로 총 120여 명의 주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중 60여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 비록 이들이 모두 당장 교회에 등록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어 연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을 확신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6>

초막절 Feast of Tabernacles, Sukkot

글 김중식 관장(세계기독교박물관, www.segibak.or.kr)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다 보면 출애굽의 감격을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실제로 초막에서 자녀들과 1주일 동안 거주하는 것이다(레위기 23:43).

2025년의 초막절은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이다.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하므로 한국의 추석과 보통 겹치게 된다(티슈리 15~21일).

초막은 보통 널판지를 바닥에 깔고, 지붕은 나뭇잎과 가지를 엮어 만든다. 초막 천장은 가을 과일로 장식하며, 식탁과 의자 등을 설치하기도 한다. 아파트에 사는 유대인들은 초막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베란다나 옥상에 널판지를 이용해 짓기도 하고, 집 주변 공터에 설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저히 설치할 공간이 없는 가정들은 회당에 공동 초막을 짓는다.

초막절은 수장절(收藏節)로도 불리는데, 열매를 수확해서 저장하는 날이라는 뜻이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수확의 계절이었다. 따라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와 올리브를 먹을 수 있었다(신명기 6:11).

수장절 전에는 석류와 무화과를 먼저 수확한 후 포도를 따낸다. 그리고 올리브는 마지막으로 추수한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도 불린다.

초막절에는 안식일 회당에서 전도서를 낭독한다.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편안한 생활을 감사하되, 이 편안함도 잠깐일 뿐 결국은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ㄹ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는 토라를 어깨에 메고 빙글빙글 돌면서 밤새도록 춤을 춘다. 모세가 마지막 날에 토라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ㄹ 광야에서 하던 대로 초라한 초막을 지은 예루살렘의 초막절 모습



꿈을 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다음세대

꿈꾸는 다음세대

학생

꿈을 담는 가정

가정

꿈을 지켜주는 담장

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꿈꾸는 다음세대

꿈꾸는 꼬마 (꿈꼬)

영아(0~3세)
유아(4~5세)
유치(6~7세)

꿈꾸는 어린이 (꿈린이)

초등학교
1~6학년

꿈꾸는 세대 (Dream Generation, 꿈젠)

꿈젠 중등부

14세~16세
중학생

꿈젠 고등부

17세~19세
고등학생

≡ 꿈.담 ≡ 유아부

성경학교, 가정까지 스며든 하나님 나라

글 정은숙 기자

성경학교 주제에 맞춰 진행된 설교와 공과 활동 속에서 아이들은 전
신갑주의 여섯 가지를 성경 인물과 함께 배우며 ‘주님의 꿈꾸는 용
사’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아이들의 간증을 통해 부모님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이
어졌다. 성경학교는 단지 아이들의 프로그램에서 끝나지 않고, 부모
님의 마음속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깊이 스며드는 시간이었다.

한 부모님은 성경학교를 마친 뒤 이런 메시지를 전해왔다.

“오늘 아이가 성경학교를 다녀오면서 얼마나 밝은 얼굴로 나왔는
지 몰라요. 집에 오는 길에 방패를 보며 ‘믿음의 방패로 엄마 지켜줄
게!’라고 말하는데, 순간 가슴이 찡하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
요. 아이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과 마음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
니다. 고생 많으셨고, 따뜻한 사랑과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짧은 고백 속에는 성경학교가 남긴 놀라운 열매가 담겨 있었다. 아
이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가정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믿음이 부모
의 마음에 감사와 감동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
로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특별한 은혜의 순간은 또 있었다. 한 익명의 부모님이 전한 ‘플로잉’
이었다. 성경학교 준비로 분주한 유아부 교사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
하고 싶다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신 것이다.

“양요한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매주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사랑으
로 품어주시는 모습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

경학교를 준비하시며 많이 분주하실 텐데, 성경학교 주제와 잘 어
울리는 작은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필요한 색
상과 수량을 알려주시면, 교회에 무명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혜가
흘러가도록 길을 내어 준 한 부모님의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을 지나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플로잉’의 실제적인 모습이었
다.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성경학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더욱 깊은
사랑과 연합을 심어 주었다.



1. 여기 모여라! 하나님의 용사를 출동!
2.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무장한 작은 용사들

≡ 꿈.담 ≡ 초등 6부

화평의 크루,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글 정은숙 기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2>

주일 아침, 초등6부 예배실은 밝은 웃음과 반가운 인사로 가득 찬다.

초등6부의 목표는 단순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로 자라나는 것. 예배 속 찬양과 기도, 그리고 주중의 작은 대화까
지 아이들은 서로의 다름을 배우고 존중하는 연습을 한다. 교사들은 예
배 전후로 아이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통해 화목
과 용서,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심어 준다.

특히 ‘달란트 잔치’를 통해 아이들은 또 한 번 크게 성장한다. 찬양, 암송,
예배 태도, 미술, 봉사... 각자의 재능이 작은 불빛처럼 반짝이며, 그 빛들
이 모여 더 큰 사랑의 등불이 된다. 아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나
누며 섬기는 기쁨을 배우고, 서로를 세워 주는 법을 몸으로 익혀 간다. 그
래서 초등6부는 단순한 주일학교가 아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자라나는 믿음의 가족과 같다.

김태국 전도사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작은 손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초등6부 예배실에서는 평화를 꿈꾸는 크루들이 함께 지어가는
이야기가 조용히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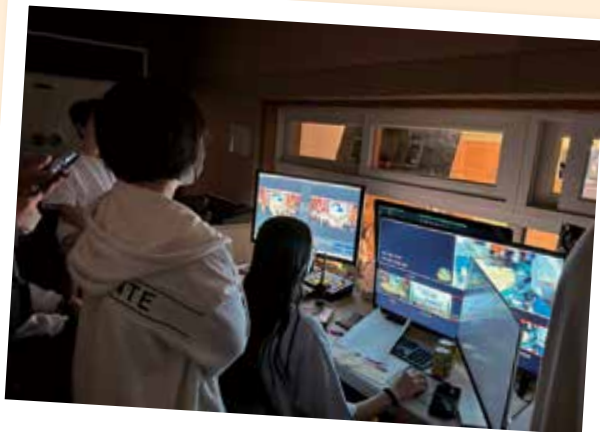
1. 2. 사고 싶은 물품 앞에서, 찰칵!
3. 새롭게 교회에 나온 친구들, 환영해요!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길 기대합니다

꿈담 | 중등부

중등부 네 개 사역팀 인터뷰 워십팀, 방송팀, 찬양팀, 예배팀

글 태경환 학생기자

오늘은 중등부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네 사역팀 [워십팀, 방송팀, 찬양팀, 예배팀]의 대표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중등부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자.



방송팀



예배팀



워십팀



찬양팀

... 태경환 학생기자

먼저, 사역팀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이유가 궁금해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나요?

... 배태은(워십팀) 저는 14살에 중등부에 올라오면서 '루다'라는 사역지파를 처음 알게 됐어요. 앞에서 기쁘게 웃으며 워십하는 언니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워십팀에 지원했어요.

... 유유림(방송팀) 저는 방송지파를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고 싶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송팀을 선택하게 되었죠.

... 오연우(찬양팀) 저는 광성드림학교에서 기타를 배우고 있었는데, 배운 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찬양팀에 지원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 염지인(예배팀) 예배팀은 예배를 준비하는 팀인데요, 저는 중등부를 돕고 싶었고, 사역을 통해 교회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지파를 선택했어요.

... 태경환 학생기자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배태은(워십팀) 처음에는 그냥 재밌어 보여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달란트를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 유유림(방송팀) 저도 방송을 하면서 다양한 걸 배우게 되었고, 방송 자체에 흥미도 생겼어요.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조금씩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 오연우(찬양팀) 예전엔 찬양을 그냥 좋은 노래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찬양팀에서 활동하면서 가사에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르게 되니까 찬양이 예배라는 걸 마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 염지인(예배팀) 예배팀은 사실 준비할 것도 많고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선후배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뿌듯함이 커요.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이 있어요.

... 태경환 학생기자

사역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씩 나눠주세요.

... 배태은(워십팀)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수련회예요. 평소엔 조용하던 친구들이 집회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뛰는 모습을 보는데, 앞에서 워십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느꼈어요. 땀 흘리며 섬기는 게 힘들긴 해도, 그만큼 은혜가 컸어요.

... 유유림(방송팀) 저는 1학년 겨울엔 일반지파로 수련회를 갔다가, 여름엔 방송팀으로 참여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정말 기뻐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 오연우(찬양팀) 저는 지난 여름 수련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중등부 마지막 수련회였는데, 둘째 날 저녁집회에서 정말 기쁘게 찬양했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요.

... 염지인(예배팀) 예배팀이 다 같이 아우팅을 갔던 날이 있어요. 그날을 통해서 더 친해졌고, 서로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 시간이 팀워크에 큰 도움이 되었고,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 태경환 학생기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찬양팀과 워십팀

꿈.담 고등부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글 최아인 학생기자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정작 중요한 문자에는 답장을 하지 않은 채
‘읽씹(읽고 씹다, 읽고 답장하지 않다)’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 여름, 우리 고등부는 그동안 읽씹해 온 답장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지만 우리가 무시해 온 ‘읽지 않은 2건의 DM’은 무엇일까.

최기자 『겨자씨』 독자들을 위해 그 ‘읽지 않은 2건의 DM’이 무엇인지 소개해주시겠어요?

이국민 전도사 안녕하세요.~ 고등부의 이국민 전도사입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읽지 않은 2건의 DM’이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위해 내가 할 것을 하게 하신다.’는 내용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성전의 지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위해 나에게 직접 기도하게 하신다.’는 주제였어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최기자 학생회장으로서 수련회를 준비하며 느낀 점이 있나요?

김윤영 학생회장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함께하니 큰 힘이 되었어요. 서로 도우면서 자리가 잡혀가는 과정을 보며 기 뵈었습니다. 학생회장으로서 앞에서 이끄는 것뿐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준비 과정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함께 기도하고 노력한 만큼 은혜가 컸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신다는 걸 깊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최기자 둘째 날 ‘노아의 방주’ 체험을 하며 느낀 점은요?

김윤영 학생회장 실제 방주를 체험하니 성경 이야기가 훨씬 실감 나게 다가왔어요. 그 안에서 노아의 순종과 인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생 각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한 노아처럼 저도 믿음을 지키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또 하나님의 계 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이국민 전도사 방주의 완성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크기의 3분의 1로 제작했고, 하층에는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배열하고, 상층에는 노아 가족의 생활 모습을 성경 말씀에 맞춰 세세하게 재현했더군요. 앵무조개 화석 같은 과학적 증거물도 있어 하나님의 섬 세하심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 리뷰

이날 방주 안에서 짧은 영화 한 편을 보았다. 영화 제목 ‘Most’는 체코어로 ‘다리’를 뜻한다.

이야기는 다리를 관리하는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배를 통과시키기 위해 다리를 올린 순간 예고 없이 기차가 달려온다. 이를 먼저 알아챈 아들은 다리를 내리기 위해 달려가다 틈새로 빠지고,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외침을 듣지 못한다. 뒤늦게 상황을 안 아버지는 기차 승객들과 아들 중 누구를 살릴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한다. 이 영화는 기독교적 상징을 품고 있다. 아들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버지의 선택은 ‘살리려면 죽어야 한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떠올리게 한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본질과 그 사랑이 가져오는 구원을 묵직하게 전한다.



최기자 영화 ‘Most’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김윤영 학생회장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아버지의 결정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 랐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느꼈고, 그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겠 다고 생각했어요. 짧지만 마음을 울리는 영화였습니다.

이국민 전도사 이전에도 봤던 영화였지만, 방주 안이라는 공간이 주는 분위기 때문인지 새롭게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시 키는 장면을 보며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느끼신 감정이 이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더 깊이 체험하도록 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첫째 날, 루다워십과 방성빈 목사님이 분위기를 끌어 올리고 있다
2. 첫째 날 저녁 집회, 학생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
3. 둘째 날 저녁 집회, 학생들이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
4. 둘째 날,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든다면’을 주제로 학생들이 발표하고 있다
5. 마지막 날, 함께한 모두가 단체사진을 찍었다

한국교회와 여성 ④

기획 김형수 기자

기억하겠습니다.

교회에 가기 위해 용기를 내어 울타리를 넘었던 그분들을, 조국 해방을 위해 총칼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분들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분들을, 그리고 교회 내 여성 치리권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던 그분들을.

그리고 제일 먼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 주셨던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지난 겨울호부터 이번 가을호까지 한 해 동안 특별기획으로 ‘한국교회와 여성’을 연재했습니다. 풍성한 자료와 유려한 문체, 한국교회 여성에 대한 따뜻한 사랑으로 글을 써 주신 임희국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이야기 요약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에 교육받은 기독교 여성은 지식인으로서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자각했다. 기독교 여학생들은 1919년 3·1운동에 가담하여 시위에 앞장섰고, 당국에 체포되어 고문당하는 고통을 감내했다. 기독교 지식인 여성들은 새로운 세계를 위해 여성 조직체를 결성했는데, ‘조선 여자 기독교 청년 연합회(YWCA, 1923년)’,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회(1923년)’ 등이었다. 1930년대 초반 장로교 함경(도)노회 여성들은 교단 총회에서 남녀동등권의 제도적 마련을 청원했는데, “여성 치리권 청원”이었다.

교회 여성 이야기 (1930년대~현재)

글 임희국(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1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한 ‘남은 자’로서 교회 여성들



1939년 신사참배 금식기도로 신앙을 지킨 평양여자신학원 학생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여전도회는 연합대회를 열지 못했다

1938년 장로교 교단 총회(제27회)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더 이상 버티내지 못하고 굴복했다.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이 일제의 신사에 가서 가장 먼저 참배했다. 그다음, 장로교는 일제의 태평양 전쟁에 협력해야 했는데, 교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유기(눅그릇)를 모아다가 바치고, 교회 종탑의 종도 갖다 바치고, 전쟁 비용을 위해 국방헌금을 하고 예배당 건물까지 팔아서 바쳐야 했다. 일제는 전국의 장로교회들을 강제로 통폐합시켰고 중국에는 장로교 교단을 완전히 해체해 버렸다. 즉, 일제는 한국 장로교와 개신교 여러 교단을 일본 기독교 교단에 편입시켜 버렸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이처럼 한국교회의 신앙을 유린하고, 예배당 건물을 매각시키고, 1945년 7월 장로교와 개신교 여러 교단을 일본 기독교에 편입시켰다. 이때는 8·15 광복 한 달 전이었다.

그러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거부하는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 놓으셨다. 그 남은 자들 가운데 교회 여성들이 특별했다. 장로교 여전도회 연합회는 교단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에 순복하지 않고 여전도회의 총회 소집을 미루며 공식 입장을 내어놓지 않았다. 1940년 경상남도 여전도회 연합회가 부산 향서교회에서 회의를

개최했을 때, 이 자리에서 회장 최덕지의 사회로 신사참배 불참을 선언했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장로교 총회 소속 여전도회가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이었다. 그 이후, 여전도회 연합회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지하로 잠적했다.

1938년부터 1945년 8·15 광복이 오기까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신앙인들 50여 명이 감옥에서 사망하여 순교자의 반열로 들었다. 8·15 광복과 더불어 한국 장로교가 다시 회복된 데는 이러한 순교자들과 함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잠적한 교회 여성들, 곧 ‘남은 자=거룩한 그루터기’가 있었다.

2 8·15 광복 직후,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 복원

8·15 광복을 맞이하고 1년이 지난 1946년, 장로교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는 제14회 여전도회 대회를 개최했다(회장 신애균, 총무 김성무). 이로써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여 지하에 잠적해 있다가 지상으로 나타났다. 여전도회 지방 연합회도 전국 각처에서 다시 조직되었다. 그 이후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는 회장들(신애균(14대), 유각경(15대), 한영신(16대), 김필례(17~20대))의 헌신과 지도력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6·25 한국전쟁(1950년~1953년)으로 말미암아 1951년과 그 이듬해에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가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여전도회의 재정 형편도 매우 어려워져 상임 총무의 인건비조차 막막했는데, 회장 김필례의 노력으로 미국 장로교 북장로회의 지원을 얻었다. 여전도회는 운영을 유지하기 힘겨운 상황에서도 『월례회 인도책』을 발간하여 전국 교회의 여전도회가 정기적으로 모이도록 했고, 또 1956년에 전국 연합회의 ‘회가(會歌)’를 제작하여 회원들의 단결력을 집중시켰으며, 여전도회의 지방 연합회를 2배 늘려서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나게 했다. 또,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는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미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교회 여성들과도 교류했다.

3 8-15 광복 직후,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헌법 입법 의원으로 참여

8-15 광복 직후,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이 국가 건설과 사회 민주화를 위해 정열을 쏟았다. 1946년에 미군정이 과도정부의 입법 의원을 구성했을 때, 의원 45명 가운데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이 포함되었다. 신익경, 박승호, 황신덕, 박현숙 등이었다. 여기에 자극받은 여성 단체들이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입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건의안은 민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평등권뿐만이 아니라 결혼, 가족 및 노동 분야를 포함한 총괄적인 민주적 입법에 대한 촉구였다. 또한 여성들은 축첩을 금지하는 일부일처(一夫一妻)제를 요구하는 여권 옹호 연맹을 조직하여 “축첩자 입각(入閣)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독교 여성들의 이러한 활동이 사회에 영향을 행사했고,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에는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남녀평등권이 헌법상 보장되었다.

4 1950년대 기독교 여성들의 정치·도덕 정화운동

1950년대, 기독교 여성들이 그 당시 정치가들의 깨끗한 일상 윤리와 반듯한 도덕성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1958년 4월 13일, 이제 곧 제4대 국회의원(민의원)을 선출하는 5월 2일 투표 일정이 임박한 시점에 선거 분위기가 날로 혼탁해졌다. 4월 21일에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는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기독교 총결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에 참여한 기독교 여성 단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여전도회 전국대회’, ‘대한기독교감리회여전교대회’, ‘대한기독교장로회여전도연합대회’, ‘대한기독교성결교부인회’, ‘대한구세군부인회’, ‘대한기독교침례회부인회’ 등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교회 여성들이 다음을 천명했다.

- ① 첩 둔 사람이 국회의원 됨을 반대한다.
- ② 술장수가 국회의원 됨을 반대한다.
- ③ 국회를 돈벌이 판으로 악용하려는 사람이 국회의원 됨을 반대한다.

우리는 청렴결백한 국회의원을 요구한다. 우리는 나라의 발전과 겨레의 복리를 위하여 양심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국회의원을 요구한다. 우리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싸울 국회의원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1950년대 문란한 정치 지도층의 윤리 의식과 도덕성을 선거로 심판하자는 기독교 여성들의 외침이었다.

5 1994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의 남녀평등 법제화 결의

한국 여성들의 능력이 남성 못지 아니한데, 20세기의 여성은 곳곳에서 단지 남성의 보조자 역할에 그쳐야 했다. 교회에서는 교인 다수가 여성임에도 여성은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당회에 참석할 수 없었기에,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서 소외되었다. 해서, 교회 여성들 가운데는 이것이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이라 주장했다.

1934년 이후 60년 동안 장로교 예장통합 교단 여성들은 여성 치리권을 총회에 청원하여 성사되기를 기다렸다. 1994년에 장로교 예장통합 교단 제79회 총회(총회장 김기수 목사)는 여성 안수에 관한 안건을 찬반 토론 없이 투표했다. 그 결과 찬성 701표, 반대 612표, 기권 8표로 여성 안수가 총회에서 허락되었다. 남녀평등이 교단 총회에서 법제화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1953년 피난지 부산중앙교회에서 열린 제18회 여전도대회



한도 후, 1954년 4월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제19회 여전도대회

그런데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이 남아 있었다. 이제는 총회 산하 전국 노회들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각 노회의 노회원 2/3 이상이 여성 안수 헌의를 찬성해야 했다. 1995년 3월부터 장로교 예장통합 교단의 전국 노회들이 그 헌의를 놓고 투표했다. 그 결과, 여성의 목사 자격에 관하여 찬성표 73.8%, 또 여성의 장로 자격에 관하여 찬성표 74.4%를 얻었다.

교단 총회에서 여성 안수 법제화가 공포된 지 11개월 만에 장로교 예장통합 교단에서 첫 번째 여성 장로가 탄생했다. 1996년 4월 28일 서울노회 안동교회에서 여성 장로가 임직했다. 그해 10월 8일에 첫 여성 목사가 탄생했다. 울산노회 동신교회에서 첫 여성 목사의 임직식이 거행되었다. 10월 9일 경상북도 영주노회에서, 10월 23일 평북노회에서, 10월 25일 서울노회에서, 10월 29일 영등포노회에서, 11월 4일에는 서울동노회에서 여성 목사가 임직했다.

6 ‘문명의 전환’과 여성 리더십

날이 갈수록 심각성이 더해지는 기후 위기를 체험하는 인류는 문명의 전환을 기다린다. 이 기다림에는 20세기 내내 지배하던 철기 문명이 그 수명을 다했다는 인식이 포함되었다. 철기 문명은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남성적 문명을 대변한다. 즉, 굵은 철근으로 건물을 높이 짓고, 강한 쇠붙이에 인간의 의지를 새겨 넣어서 이것으로 기계(자동차, 비행기 등)를 만드는 철기 문명은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를 외쳤다. 철기 문명의 총과 대포와 핵무기로 무장한 힘센 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를 침략 정복했다. 철기 문명은 자연까지 정복하려 했다.

이렇게 힘이 센 철기 문명이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한다. 쇠붙이가 강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하여 녹이 슬듯이, 철

기 문명도 그렇게 수명을 다했다고 한다. 쇠붙이가 강하기는 하지만 차갑고 사나운 냉기가 돌고 또 사람이 기계 겉으로 다가서면 그것이 언제 사람을 다치게 할지 몰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한다. 쇠붙이의 결정적인 약점은 쇠붙이 자체에서 생명이 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생명이 결핍된 철기 문명은 이제는 더 이상 미래를 밝혀주지 못한다. 심각해진 기후 위기는 철기 문명의 위기를 대변해 주고 있다. 지구 온난화, 공기와 마실 물의 오염, 생물 종의 감소, 환경호르몬의 증가, 오존층 파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며 해수면이 높아지는 현상 등등이 철기 문명의 한계를 경고하고 있다. 이제는 물질 번영에 집중한 철기 문명이 아니라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살리는 생명의 문명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이 생명의 문명은 여성성이 드러나는 부드러운 문명이기를 소망한다.

사랑이 빚어내는 생명의 문명은 부드러운 정서로 싹트고 자란다. 부드러움은 남성에게서는 좀체 찾아보기 힘든, 여성의 속성이다. 아이들의 놀이문화에서도 사내아이들은 기계·장난감을 좋아하고 딸아이들은 인형을 좋아한다. 이것은 남성이 사물에 관심이 높고, 여성은 사람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말해 준다. 부드러운 온유함으로 사람을 배려하는 여성은 사람을 품어 내는 포용력을 갖추고 있다.

배려와 포용의 여성 리더십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부드러운 리더십이다. 부드러운 리더십은 언제 어디서나 유머를 창조하여 이웃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다. 가정에서 항상 웃음꽃을 피우는 여성, 찬송과 웃음으로 교회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여성, 딱딱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유머로 부드럽고 밝게 만들 줄 아는 여성, 사람과 사람의 연합과 협력을 이끌어 웃음으로 손을 잡게 하는 여성 리더십은 생명이 피어나는 문명의 어머니이다.



여전도회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앞장선 절제대강연회(1957년 6월, 파고다공원)



1995년 8월,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0회 총회 및 여성 안수 축하 기념대회. 전국 각지의 여전도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행사가 진행되었다

AI 시대, 교회가 먼저 준비합니다 (사)크로스로드 AI교육연구소 개소 감사예배 드려

글 손민준 목사



ㄹ 크로스로드 AI교육연구소 개소 및 작은교회 목회자 세미나 참석자 단체사진(2025년 6월 28일). 신앙과 AI 교육의 융합을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사)크로스로드는 지난 6월 28일(토), 광야의 영성홀에서 AI교육연구소 개소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는 AI 시대를 맞아 교회와 목회자들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정성진 목사님(크로스로드 이사장)은 “앞으로 세상은 AI를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것”이라며, “교회가 먼저 AI를 잘 활용하여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축사 시간에는 이범주 목사님이 AI로 작성한 축사 원고를 직접 낭독하며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고, 박승현 목사님은 “AI교육연구소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ㄹ ‘교회가 먼저 AI를 잘 활용하여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크로스로드 정성진 이사장



ㄹ 거룩한빛광성교회 박승현 위임목사



ㄹ 박한영 대표



ㄹ 박에녹 목사



ㄹ 이은아 대표



ㄹ 이진민 교수



ㄹ 최종학 대표

신임 소장으로 임명된 우동진 목사님은 “오는 8월 말부터 본격적인 교육과정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목회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AI 오픈 강의가 이어졌으며, 여름 행사 기획,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 미디어 제작, 그림책 만들기 등 실제 사역에 도움이 되는 AI 활용법을 강사들이 소개했습니다. 이날 강사로는 디딤AI연구소 최종학 대표, 한세대학교 이진민 교수, 153AI교육연구소 최종철 대표, 서번트리더십 AI연구소 이은아 대표, 비전AI연구소 박한영 대표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AI교육연구소의 출범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교회가 시대의 변화를 품고 미래를 이끌어갈 준비를 시작했다는 의미 있는 선언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목회, 이제는 준비할 때입니다.

경기 파주 산남교회 오현재 담임목사 산남교회, ‘분립 파송’으로 새로운 도약,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

글 김용기기자 사진 산남교회 제공



산남교회는 산 남쪽에 있는 교회란 뜻으로 심학산의 의미를 담아 로고와 상징체계(CI)를 마련했다

70년 된 고색창연한 예배당과 아름다운 정원이 산남교회의 자랑이다. 교회 건물 중앙에 한자로 된 '山南教會禮拜堂'이란 교표(敎標)가 인상적이다

새 사역의 시작, 산남교회 변화의 첫걸음

산남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70년 역사를 지닌 전통 교회인 산남교회에 최근 거룩한빛운정교회로부터 분립 파송된 오현재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했다. 지난 8월 3일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오 목사는 “교회가 생명체처럼 자라가야 한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가치 지향적 교회를 꿈꾸고 있다.

분립 파송의 과정과 의미

산남교회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성도 수 감소를 회복하지 못하고 침체기를 겪었다. 전임 목사의 은퇴 이후, 교회 재정과 목회 사역 모두에 변화가 필요했다. 이때 거룩한빛운정교회와의 논의를 통해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거룩한빛운정교회는 분립 파송 자금을 지원하고, 2년간 담임목사 사례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이 자금을 은퇴 목사의 생활 지원과 교회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오현재 목사는 “이번 분립 파송 모델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은퇴 목회자의 안식과 지역 교회의 회복을 동시에 이루는 방법”이라며 “성도의 고령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교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목회 철학과 교회 비전

오 목사는 지난 2015년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 목사의 비서로 3년간 섬기며 목회의 기본을 배웠다. 그 과정에서 목회자를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고, 평신도와 같은 위치에서 역할만 다른 사역자로서의 철학을 다졌다. 그는 산남교회를 “도시와 농촌의 경계에 있는,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와 닮은 공동체”라 표현하며,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와 머물 수 있는 교회, 전원 속 심터 같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산남교회를 ‘지역과 함께하는(with) 교회’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교회 공간을 개방해 마을 문화와 복음이 함께 흐르는 장소, 공방·상담·기도 공간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내는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나아가 ‘एको 처치’ 운동을 도입해 창조 신학의 가치를 살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과 일회용품 줄이기 등 지속 가능한 사역에도 힘쓸 예정이다.

지역과 함께, 세대를 잇는 교회

산남교회는 1955년 한 믿음의 여인이 마을 주민의 집 사랑채에서 기도하던 자리에서 시작됐다. 이후 현재 산남교회 장로님의 할머니가 땅을 기증해 예배당이 세워졌고, 오랜 시간 마을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여름철 홍수 때에도, 가을걷이

때에도 교회가 중심 역할을 했고, 지금도 교회 옆 창고는 마을 공동 소득을 올리는 공간으로 쓰인다.

현재 마을은 원주민이 줄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의 일은 원주민 공동체가 맡고 있다. 오 목사는 “이제는 교회가 원주민과 새로 이주한 주민 사이의 가교가 되어야 한다.”며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세대와 문화를 잇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오 목사는 부임 이후 기존 성도, 운정교회에서 파송된 성도, 다시 돌아온 성도, 새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관계 회복에 힘쓰고 있다. 그는 “연말까지는 목회 철학을 세우기보다는 성도들의 삶과 형편을 이해하며 공동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부와 예배팀을 구성해 예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 변화를 시작했다. “교회는 건물보다 사람입니다. 성도와 지역 주민이 함께 자라고, 다음세대가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산남교회에서 오현재 담임목사 취임식이 열렸다



예배당의 높이가 높고 양쪽 옆 창은 스테인드글라스 처리가 된 전통적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다

오현재 산남교회 담임목사

2025년 광성드림학교 탄자니아 아웃리치 함께라 감사한 날들

글 이세은(광성드림학교 8학년)

첫발을 디딘 탄자니아

Habari~!

광성드림학교 5명의 선생님들과 16명의 학생들은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탄자니아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탄자니아는 우리에게 낯선 국가였기에 출발 한 달 전부터 모여 탄자니아의 언어와 생활, 문화를 조사하고, 기도하며 준비했다. 처음엔 막연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준비하는 동안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어 갔다. 한국에서 두바이를 거쳐 장장 15시간 이상의 비행을 마치고 탄자니아에 도착했다. 파란 하늘과 흔들리는 아자수를 보며, 이곳이 진짜 탄자니아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 Worshippers Gathering Church

“당신이 유일한 한국인일 수 있습니다.”

현지 굿네이버스 직원분이 전해준 한마디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 “외국인이 드문 이곳에서 현지인이 평생 한 번 만날 수 있는 한국인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고, 가볍게 시작한 이 여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느꼈다.

마팀브와 중학교에서의 첫 만남

첫 일정은 마팀브와 중학교에서 시작되었다.

현지 학생들은 전통 춤과 본브레이킹으로 우리를 열렬히 환영해 주었고, 우리는 악기 ‘Jambo Bwana’와 ‘Simamaka’를 연주하며 화답했다. 언어는 달랐지만 함께 수업하

고, 사진을 찍으며 금세 가까워졌다. 우리는 그림판, 문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 시간은 서로의 마음을 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후원 아동과의 따뜻한 만남

이후에는 1:1 결연을 맺은 아동들을 만나기 위해 베사바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각자 후원 아동에게 선물을 전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언어가 달라 대화는 어려웠지만, 제기차기와 쿡주머니 던지기로 금세 친구가 되었다.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에 이름을 적어 건네며 헤어질 때, 다음에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을 크게 느꼈다. 그래도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을 아이들이 오래 기억해 주길 바랐다.



⌘ 후원 아동과의 만남

유치원에서 함께한 하루

둘째 날, 므와비 ECD 유치원을 찾아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교구를 만들고, 나무도 심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작별 인사를 하며 아이들이 안아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 광성드림학교 탄자니아 아웃리치

스와힐리어 속 ‘예수 그리스도’

주일에는 한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를 방문하여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 시간 내내 모든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스와힐리어로 진행되던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국어 발음이 반복될 때, 복음이 이 땅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느꼈다.

잔지바르에서 마주한 역사

마지막 일정으로 잔지바르의 스톤타운과 노예 수용소를 찾았다. 좁고 어두운 방, 비위생적인 환경, 수모의 흔적들... 모든 것이 충격이었다. 하나님은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데, 인간이 만든 잔혹한 차별과 고통 앞에서 분노가 일었다.



⌘ 스톤타운 노예무역지 방문

⌘ 굿네이버스 탄자니아지부



크게 배운 두 가지

첫째, 감사하는 방법이다. 불편한 자리, 지연된 비행, 익숙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시선을 바꾸니 놀랍게도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보였다.

둘째, 좋은 공동체다. 누군가 아프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며 진심으로 챙겼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열흘 동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두 눈으로 보고, 따뜻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역사의 아픔까지 품으며 돌아왔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고 싶다. 진짜 광성드림학교 학생답게 세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Asante! 감사합니다!



⌘ 미쿠미 국립공원 낮잠 자는 사자들

점심시간, 교장실에서 이어지는 학생 기도 모임

글 전하빈 학생기자



선배들의 작은 시작에서 출발해 지금도 이어지는 전통

광성드림학교 교장실에서는 점심마다 특별한 모임이 열린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매일 점심 기도모임'이다. 이 모임은 작년에 한 학생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교장선생님과 함께 주도해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과 몇몇 학생이 중심이 되어 찬양과 말씀 묵상, 기도 제목 나눔, 합심 기도라는 단순한 순서로 모였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매일 점심시간마다 꾸준히 열렸고, 등교 시간에 초콜릿을 나눠 주며 홍보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관심을 끌며 많을 때는 15명 정도가 모였다. 적을 때는 교장선생님과 학생 한두 명만으로도 이어졌다. 올해 초 선배들이 졸업한 뒤에도 기도 모임은 끊기지 않았다. 남은 학생들이 주도권을 이어받아 매일 교장실에서 모였고, 학기 초에는 중학생들까지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했다.

기도 모임에는 교장선생님도 늘 함께한다. 단순한 참여를 넘어 학생들과 찬양하고 기도하며, 때로는 학교생활이나 공부, 대인관계 등 실

제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덕분에 기도 모임은 단순한 종교 모임을 넘어 학생과 교장이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기도 모임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는 고등학교 2학년의 박예은 학생은 기도 모임을 통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기도의 유무를 실감해 보며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의 기도 모임에 더 많은 학생이 찾아와, 후에 돌아보았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도 모임은 인원이 적을 때도 많을 때도 매일 이어지고 있으며, 학생 자발성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한다면 단순한 종교 활동을 넘어 공동체성과 생활 습관을 세워 가는 모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이 기도 모임을 계기로 말씀과 기도에 기반을 두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늘 기도 모임에서 학생들을 만나 주시는 박은철 교장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해 보았다.

» 광성드림학교 교장실에서 드리는 점심 기도회. 작은 불씨로 시작된 이 모임은 세대를 이어가며 학생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서로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전통이 되고 있다



교장선생님과 인터뷰

Q1. 처음에 기도 모임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1800년대 세계 영적 흐름을 바꾸고 미국 학생 신앙 운동과 세계 선교에 불을 지핀 '건초더미 기도회', 1990년대의 '국기계양대 기도 모임' 같은 기도 운동이 드림학교에서 시작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야간자율학습 중이던 고3 학생들 몇 명과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화답해 주었습니다. 학교에 기도 운동의 불씨를 지피고 졸업하기로 같이 마음을 모으고, 다음 날 바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고3 기도회였는데 지금은 학년 구분 없이 모임입니다.

Q2. 기도 모임에서 교장선생님은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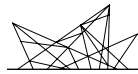
저는 기도 모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만 참여합니다. 모임 홍보와 인도 등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합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모여 기도한다는 뜻으로 '매점 기도회'라고 이름 붙인 것도 학생들입니다.

Q3.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도 모임을 편성하고 진행하는 걸 보며 느끼신 점이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은 하루 일과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운동이나 교제,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것을 다 뒤로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학생들이 참 귀합니다. 기도 모임은 '타자의 고통에 응답하는 기도'라는 모토로 친구들, 선생님들, 학교, 사회, 나라와 열방을 품고 중보하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고3 학생들은 수능 전날까지도 시험 잘 보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능을 통해 배움과 성장이 있도록, 시험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이 사회의 희망이 되도록 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학생들을 통해 기도의 본질을 다시 배우고 있으며, 함께하는 시간이 교직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Q4. 늘 열심인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드림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한 대로, 사회에 나가서도 공공의 의제를 자신의 삶으로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는 보입니다 위조화폐 식별법에서 배우는 진리 분별의 지혜

글 원재환 집사(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요즘 신용카드 사용과 온라인 거래의 증가, 화폐의 위조를 막을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적용 등으로 위조화폐 유통이 예전보다는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2022년 150건, 2023년 197건, 그리고 2024년에는 143건의 위조화폐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화폐를 위조하는 것은 큰 범죄이고 경제 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컴퓨터 스캐너와 컬러 프린터 등 첨단 기기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른 반면, 위조 방지 기술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조 방지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과 더불어 인간의 법 준수 및 윤리 의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위조화폐 유통을 막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많은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위조지폐 식별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미국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행의 위조화폐 식별 전문가들을 위한 한 세미나에서 강사로 참여한 사람은 미국 최고의 위조화폐 식별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기계로 식별이 어려운 위조화폐조차도 식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한 세미나 참석자가 그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위조화폐들을 경험하고 연구했기에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셨습니까?”

그 최고의 전문가는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위조지폐를 식별하기 위해 저는 결코 위조화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본 화폐만 매일 들여다보고 또 보고 연구하지요. 진본만 분명히 알면 위조지폐를 식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부와 대학부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한때 기독교를 사칭한 이단 종파에 대해 열심히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단 종파의 실상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고 탁명한 소장님의 이단 연구 관련 자료들을 열심히 수집하여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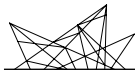
심지어 이단 종파 교주를 단죄하는 '모의 재판' 대본을 직접 쓰고 공연을 하기도 하였고, 이단으로 인정된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회사들의 상품이나 서비스(예컨대, 통일교의 세계일보, 일화 맥콜 음료, 용평 리조트 등)에 대한 불매 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으며,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뉴에이지 운동을 지지하는 음악은 듣지 말자 등등...

그러나 위조화폐를 식별하는 데 진본 화폐를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이단을 식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물몬교 등 그 많은 이단을 연구하고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피 묻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단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알리는 전문 연구소의 역할도 소중하고 그 자료들도 중요하겠으나,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정확히 아는 것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여 이를 평신도들에게 전달하는 교역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고 진짜가 더 가짜 같은, 그래서 거짓 가운데 진리를 구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참 진리를 전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애쓰시는 우리의 교역자들에게 박수와 함께 진심으로 존경을 전하고 싶습니다.



⌘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인다



조용히 흔들리는 마음, 주님은 알고 계실까

글 최아민(중2)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 나는 자꾸 나 자신이 부끄럽다. 수학은 100점 만점에 67점, 다른 과목들도 세부 항목 중 하나씩은 '중'이라는 이름 아래 간신히 줄을 서 있다. 특히 음악 과목은 한때 가수를 꿈꿀 만큼 음악을 좋아하며, 여섯 해 동안 합창단을 했던 시간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초라한 결과가 나왔다.

더 속상한 건, 나보다 훨씬 음악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가창 평가를 할 때 친구의 음정과 박자가 너무 안 맞아서 웃음을 꼭 참기도 했다. 방학식 날 받은 학교 생활통지서에는 그 친구가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못 하는 '고음'이 매우 안정적이고 부드럽다고 써 있었다. 물론 친구에게 뭐라고 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우리 둘이 같은 팀이었고, 선생님이 목소리를 헛갈리셨던 것 같다는 의심이 마음을 자꾸 괴롭힌다. 사실 솔직하게 말한다면, 선생님이 헛갈리신 게 아니라면 선생님이 음악적으로 감각이 없으시거나 나에게 악감정이 있으시다는 것밖에 이유가 없다.

하지만 내가 평소 너그럽기로 유명한 선생님의 화를 돌을 만큼 기분 나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학기 초라서 더욱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했기에 나에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음악적 감각이 없는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음악 못하는 음악 선생님은 말이 안 되는 데다가, 선생님께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오페라에 나오는 부분을 직접 불러 주셨을 때 반 아이들이 모두 깜짝 놀랐었기에 음악적 감각이 없으신 것도 아니었다. 정말 용기가 있다면 한번 제대로 여쭙보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요즘 친구도... 솔직히 예전 같지 않다. 어릴 땐 같이 놀기만 해도 하루가 짧다 하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뭔가 자꾸 비교하게 된다. 키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몸무게는 비슷하다. 같은 옷을 입어도 그 친구는 모든 게 자연스럽게 태연해 보이는데, 나는 괜히 꾸민 것 같고 어색하다. 그런 생각이 점점 쌓이다 보니, 어느새 내가 그 친구를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도 겉으로는 신경 쓰지 않는 척, 시크한 척을 한다. 이런 내가 너무 싫다. 우리 집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든다. 오빠는 좋은 성적으로 자사고에 들어가서 반에서도 늘 모범생이고, 친구들과도 나를 잘 어울리며 학교생활을 즐긴다. 동생은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라 모든 게 가능성투성이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외모까지 귀엽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런데 나는... 뭐랄까, 집에서도 유난히 평범하거나 그 아래에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든다. 노력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늘 '중'이고, '애매'하고, '그저 그런' 수준이다. 누군가 나를 향해 "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두렵다. 나도 잘 모르니까. 가끔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진다.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울고 싶어진다.

그런데, 그런 날 예배 시간에 불쑥 울컥할 때가 있다. 찬양 한 줄,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정확히 찌를 때가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이 구절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다.

내가 이미 1차로 감동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BOYNEXTDOOR'라는 그룹의 'Crying'과 'Call Me'라는 곡을 통해 나의 처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친구들 앞에서 la-la-la, 홀로 집에 가는 길엔 cry. 네가 웃으면 속이 타. 오늘도 난 하염없이 ly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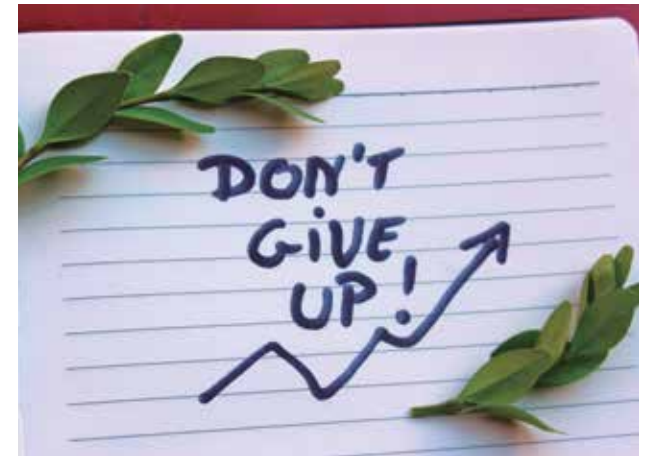
마치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못한 내 초라한 감정까지 들여다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점수도, 말하지 못한 억울함도, 혼자 비교하고 질투했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도 나를 밀어내지 않으신다.

오히려 '좀 느리면 어때. It's okay.' / '실수하면 어때. It's okay, babe.' /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 / '좀 주눅 들지 말고 Love yourself, please. / Love your style, please.' / '별거 아냐. 주눅 들지 좀 말자.'라는 가사로 나에게 "괜찮아. 느리면 어때, 실수하면 어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가 당장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주님은 이미 내 길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 그게 지금의 나를 버티게 해준다. 나는 사춘기다. 思春期, '봄을 생각하는 시기'라는 뜻으로 예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를 말한다. 또한 '봄'은 생명과 새로움의 상징이므로, 새로운 감정과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의미도 있다.

나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사춘기라고 생각한다. 사춘기 때 모두 한 번쯤은 부모님께 "너 사춘기니?"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대부분 이 말은 내가 화를 냈거나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등 '부정적인 상황'에서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춘기'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 사춘기는 혼란 속에서 자아를 발견해 가는 여정이고, 번덕스러운 무수한 감정의 파도는 나약함이 아닌, 깊이 있는 성찰의 문을 연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어른의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인간다움이 자라고, 질문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탐구하려는 힘이 깃든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만큼,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는 열망도 뜨거워진다. 실수와 실패는 철저한 교훈이 되어 삶의 방향을 정립하는 밑거름이 된다. 이 시기의 불안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불꽃이며, 영혼을 버리는 시간이다. 결국 사춘기는 인간으로서 한 번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생각하는 존재'로의 통로다.

물론, 나는 아직 멀었다. 여전히 점수는 오르지 않았고, 친구에 대한 감정도 정리가 안 되고, 자존감도 자주 무너진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다려 주신다. 하나님은 계속될지도 모르는 나의 '방향기'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나도 오늘 하루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속도는 느릴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꿈은 점점 더 높이, 더 가까이 다가온다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므로



크리스천이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글로벌 저출산·저성장 시대 한국 경제와 인구 및 주택문제

글 박길환 기자(대구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발전 전공)

20세기 전반 두 차례에 걸친 대전 이후 세계는 냉전시대를 맞이했다. 국제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TO와 그 자본주의 동맹국, 그리고 이에 대응한 공산권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그 동맹국이라는 양대 축으로 재편되었다. 이 양대 축에 속하지 않고 비동맹주의를 표방한 인도 등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은 제3세계를 형성하였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대서양,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태평양까지 휩쓴 전쟁의 여파로 나치 독일 등 군국주의 진영과의 생사를 건 경쟁과 진영 간 팽박 속에서 학자들은 군사 기술 중심의 연구를 회피하며 미국 등지로 망명까지 감행하였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망명한 경우와 미처 망명하지 못해 협박 속에서 협조한 경우를 막론하고 결국 양 진영의 과학자들의 집단지성에 의해 비평화적인 목적으로 치열하게 개발된 다양한 집약적 과학기술과 공학이 이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집약적 과학기술의 발전과 양대 진영 간 경쟁, 베이비붐 세대의 폭발적 인구 성장, 그리고 전후 복구 과정 속에서 20세기 후반의 경제성장은 역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전개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성장은 20세기 후반에 걸쳐 냉전 양대 진영 모두에서 노동력 증가와 병력 증강에까지 기여하였다. 경제 성장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자본·노동·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20세기 후반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집약적으로, 폭발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성장한 시기였다.

그러나 자본·노동·기술을 모두 통제하려던 공산권이 몰락한 21세기에 이들 세 가지 요소는 어떠한가? 자본과 기술은 여전히 증가하거나 발전하고 있지만, 노동의 경우 그 증가율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7형제 ○○탕'과 같

은 가족 회사 등은 21세기에는 더 이상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되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과연 20세기 후반과 같은 비교적 높은 인구성장률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인구의 현상 유지 측면에서 합계출산율 2.0이 여전히 중요할 수는 있다. 단, 현재의 인구가 과밀하여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교통 혼잡, 공해, 환경오염, 사회 불안 등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다.

21세기에 들어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자, 한국은 산아 제한 정책, 중국은 계획생육정책(1979~2015)을 철회했으나,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속된 인구 피라미드상의 구조적 고령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2차 대전 후 미국의 마셜 플랜 등의 지원과 연대로 독일(서독)과 함께 성장한 일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21세기 초 중국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한때 10%를 전후할 정도로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국 직후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최근 경제성장률은 12%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2022년 미국 인구조사국의 예측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고령화는 2060년까지 33.7%로, 만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3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세계 최저인 한국과 홍콩을 포함해, 대만과 싱가포르의 출산율도 모두 1.0 이하로 떨어졌다. 2025년 한국은 드디어 만 65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2024년 통계청 연구에 따르면 2044년에는 인구가 현재 5,100만 명에서 최소 수백만 명 감소하고, 고령화율이 36.7%로 증가해 일본(36.5%)보다 고령화된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와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혁명적 변화는 AI

와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의 전 지구적 혁신과 확산, 그리고 이에 대한 빠른 투자와 금융자산의 증대 없이는 일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 분야, 파급 효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금융시장 역시 불안정하다. 이러한 세계적 저성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기 분야는 역시 인구와 기술, 그리고 금융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합계출산율 1.0은 곧 1/2의 인구 감소를 의미한다. 결혼 적령기인 30세 이상에 더해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가족 세대, 즉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구분한다면 1984년을 전후로 합계출산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지 약 35년 뒤에 출산율 감소가 두드러질 수 있다. 2020년을 전후하여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세로 들어선 것도 산아 제한 정책 등으로 급격히 하락한 1980년대 초중반의 출산율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낮아진 출산율만큼 역으로 낮아진 사망률이 인구 감소를 지연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약 3만 명의 '자연감소'가 2020년에 기록된 후 자연감소가 2050년대 이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구 구조의 질적 특성이 변화하고 있는 점에도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과학기술, 조직·업무와 금융시장의 혁신이 중요하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지면의 한계로 차후에 논의해 보기로 한다.

셋째, 인구와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 금융시장 외에 특히 각 가구별 자산 관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택 및 부동산(금융)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는 없다. 전체 주택 중 약 65%의 비중을 차지하는 표준화 주택인 아파트

를 포함해 주택은 향후 절대적 인구 감소에 비례해 반드시 그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될까? 우선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경우, 그리고 그중에서도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지역의 경우 이러한 급격한 자산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국내 인구의 본격적 감소는 2030년대이나, 2030년대까지는 가구 수의 증가가 인구 감소 효과를 지연시켜 이로 인한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단, 감소하고 있는 평균 2인 이하(2024년 평균 가구원 수 2.2명)의 가구원 수에 맞춘 규모의 주택이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정 물량이 공급될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 전망에도 불구하고, 2040년대 이후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주택 공급 물량도 자칫 잘못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구별 주택 자산의 급격한 가치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주택·부동산 자산 외에 금융자산의 비중도 적절한 수준에서 확보하고, 각 가구는 시장의 실수요 상황에 맞는 주택 규모를 선택하되, 지역별·시기별로 정확한 객관적 정보를 통해 이자율·통화량 변동, 경기 변동, GDP 성장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저출산·저성장 시대에 대비하는 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보다 가구별, 국가별로 중요한 것은 가족계획일 것이다. 풍성한 사회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추억과 기쁨, 그리고 슬픔을 나누는 가족에서 비롯된다. 가구와 국가의 경제력도 물론이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꿈꿨던 국부 증진과 풍요도 이러한 풍성한 자녀, 가족, 그리고 사회 성원 간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고맙습니다’ 릴레이

1. 이해주 권사님은 정순신 집사님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제가 초등부 찬양대 친구들을 섬길 때, 정순신 집사님께서 저희 부서를 든든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절기 행사를 준비하며 주말마다 연습할 때면, 부장님(정순신 집사님)은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연습 장소에 슬그머니 나오셔서 아이들에게는 간식을 건네주시고, 저에게는 “수고 많으십니다.”라며 환한 미소를 보내주셨지요.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연습에 집중하지 못할 때면, 부드럽게 “열심히 해! 다음에 또 맛있는 거 사줄게.”라며 다독여 주셨고, “부장님!” 하고 부르면, “네.~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며 언제나 든든하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시는 멋진 분이셨습니다.

특히 제가 추천한 곡을 부장님께서 솔로로 불러주실 때면, 그 섬세한 해석과 멋진 음색에 모두가 감탄했지요. 찬양이면 찬양, 기타 연주면 기타, 어디서든 멀티 플레이어로 열정과 신실함을 보여주신 정순신 부장님은 지금도 초등 1부 부장님으로 성실히 섬기고 계십니다.

주일 이른 아침, 엘림찬양단의 기타 연주자로 섬기시는 부장님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칭찬 릴레이 주자로 정순신 부장님을 진심으로 추천하며, 그동안의 헌신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해주 권사와 정순신 집사

2. 정순신 집사님은 김상용 집사님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저는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음에도 교회에 나아가는 일을 계속 미루었고 신앙생활 역시 나태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권유로 섬김사관학교 스태프로 함께 봉사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김상용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안수집사회는 헌신적으로 섬김사관학교를 운영하고 계셨고, 김상용 집사님은 회장으로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최재권 집사님, 양해원 집사님, 성경석 집사님 등 68남선교회의 집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며 즐겁게 봉사하시는 모습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고, 무뎠던 제 신앙에 다시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김상용 집사님은 회장직뿐 아니라 보아스 찬양대 단장으로도 섬기시며,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긍정적이고 온화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끄셨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환경도 녹록지 않았지만, 힘든 내색



⋈ 정순신 집사와 김상용 집사

없이 늘 지체들을 먼저 챙기시고 겸손한 자세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는 3부 예배 예인찬양단의 싱어이자 제2찬양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찬양단원들을 격려하시고, 각 부서의 어려운 점들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해결하시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베푸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 저 또한 점차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고,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열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3. 김상용 집사님은 이상민 집사님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상민 집사님은 저에게 언제나 바나바와 같은 든든한 동역자이자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지난 안수집사회 임기 동안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묵묵히 함께해 주시며, 저의 부족함을 따뜻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집사님의 헌신적인 섬김 덕분에 제가 그 귀한 직분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안수집사회 회장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집사님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늘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시는 겸손한 섬김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충실히 걸어가는 집사님의 헌신과 본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집사님의 앞길 위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풍성한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4. 이상민 집사님은?

'고맙습니다 릴레이'는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김상용 집사와 이상민 집사

광성북카페

사진 이종수 청년기자



글 고현정 팀장(광성북카페)

☞ 광성북카페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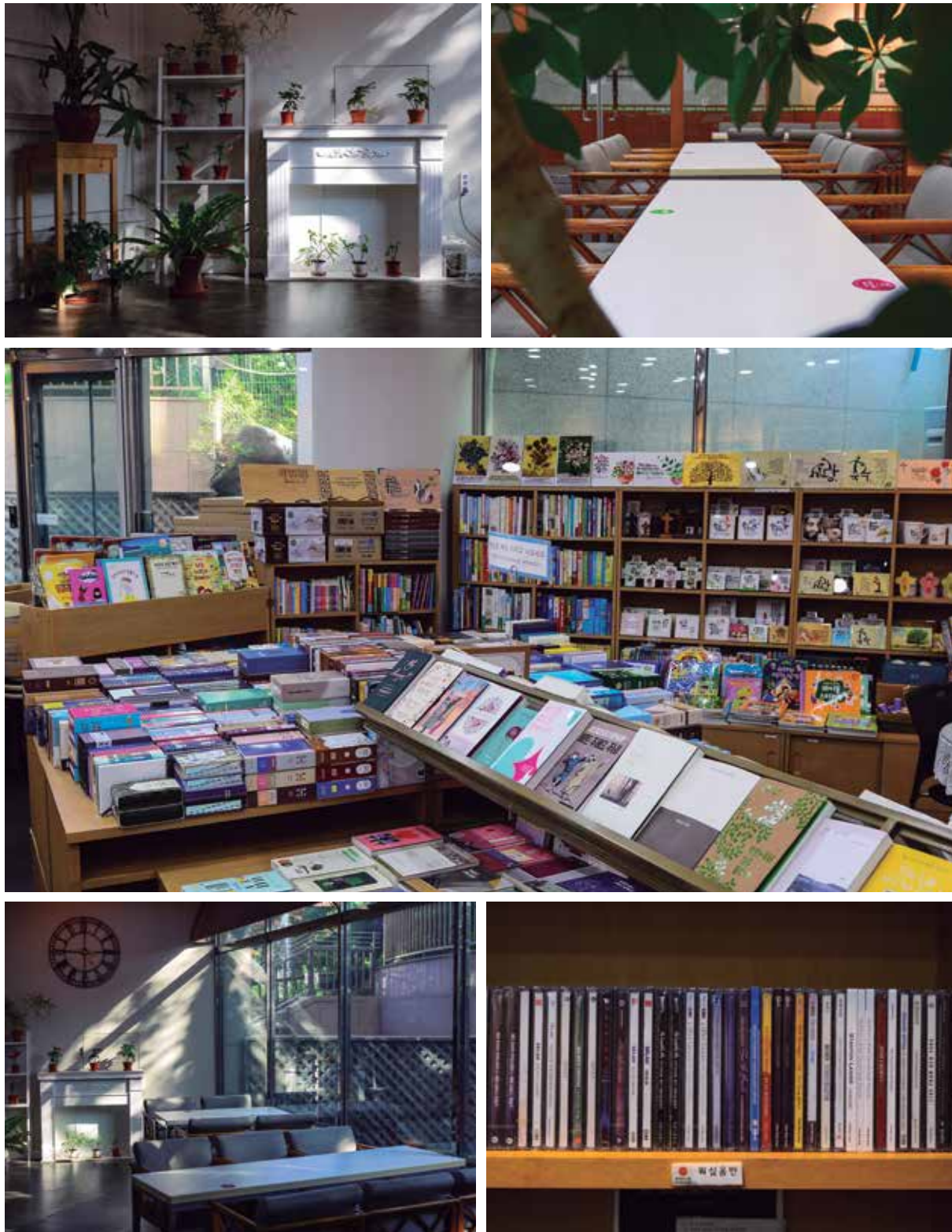
지하 1층에 위치한 북카페는 2005년 9월 20일 F000001번 정성진 목사님의 회원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 시스템상 3,200명가량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약 400명가량의 성도님들이 북카페를 이용하고 있으며, 도서 대출은 월 500권에서 많게는 1,000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카페는 홀수 달 첫째 주에 신간을 비치하고 있으며, 성도님들로부터 신청받은 희망 도서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양질의 최신간 도서를 수서하고 있습니다. 북카페의 자량 중 하나는 지역 도서관에서는 대출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베스트셀러 도서들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지역 도서관에서는 예약자가 20명이 넘었던 책을 북카페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치며 신규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 인연이 이어져 팀장으로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북카페는 매월 '북퀴즈'를 진행하며 아동과 성인 각 1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에는 '다독상' 이벤트와 '독서 논술' 특강을 진행해 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 북카페는 새롭게 교체된 탁자와 의자로 도서관 못지않은 독서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선선한 날씨 속에 앞으로도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활발한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주년 맞이한 지혜모아

사진 이중수 청년기자



지혜모아팀

글 이시연 간사(지혜모아)

지혜모아는 2005년 거룩한빛광성교회가 덕이동으로 이전할 때 함께 개원한 기독교 서점입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돕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문화선교의 사명을 다하며, 거룩한빛 광성교회 5대 비전 중 하나인 '지역사회 문화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한 지혜모아에는 성경을 비롯한 다양한 기독교 도서와 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은 소그룹 활동, 조용한 독서와 쉼을 위해 언제나 열려 있어 성도님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수어

수어통역 박경숙 집사(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

안녕하세요.
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이 봉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짹짹!

성부



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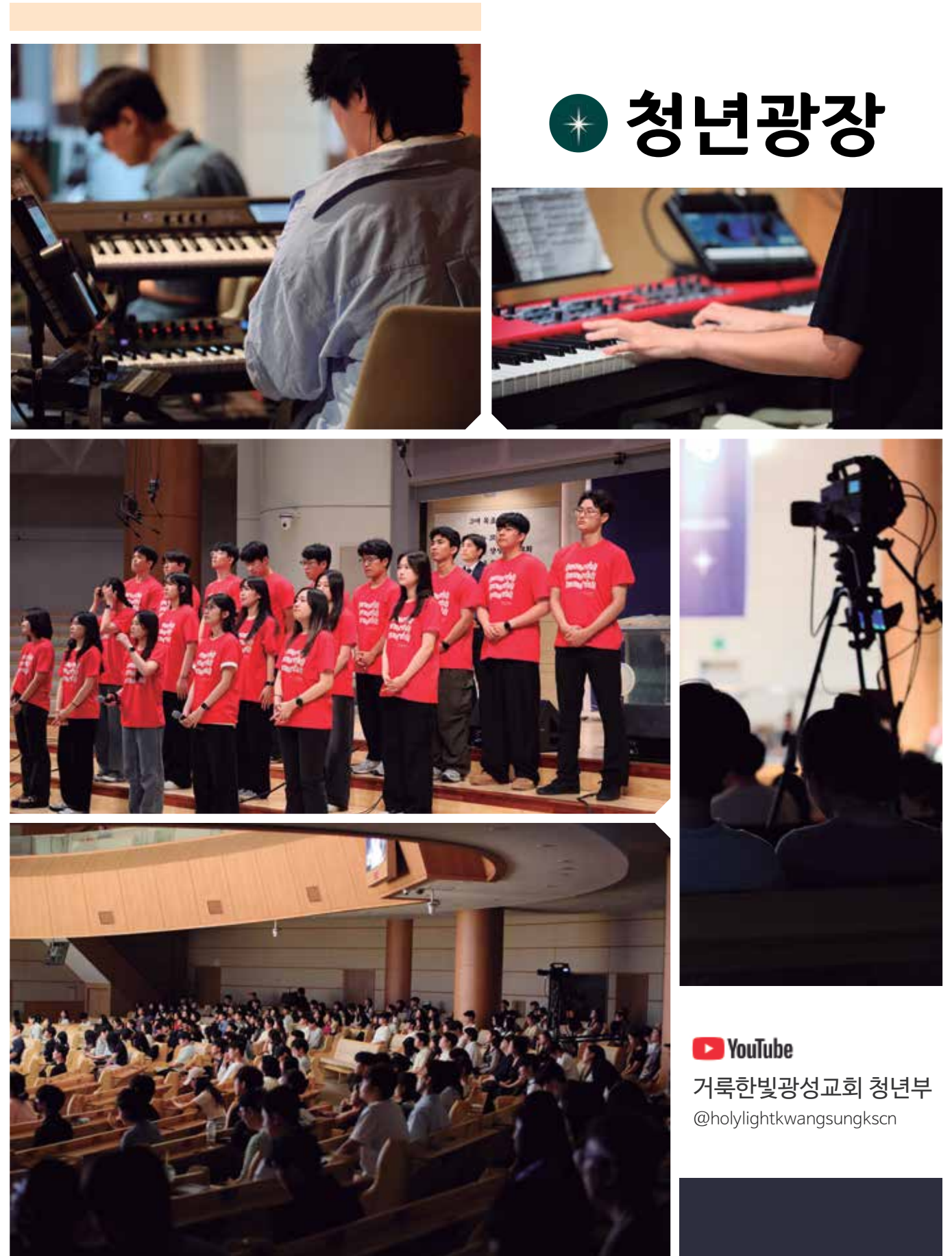
성령



삼위일체



청년광장



YouTube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holylightkwangsungscn

기다림과 침묵의 순간 속에서

글 김다빈 청년기자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에서는 주제를 정해 한 달 동안 동일한 주제로 설교를 이어가는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분의 교역자님들이 번갈아가며 전달해주시는 내용을 통해 청년들은 한 가지의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중 2025년 1월 진행되었던 '침묵'과 7월 진행되었던 '기다림이라는 공백'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 '침묵'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침묵과 내 신앙의 관계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यो 그의 모든 행동에는 인정이 없다” <야고보서 1:6-8>

성경은 내가 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혹은 마음속에 어떠한 의심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 시리즈 설교 '침묵' 주제 사진



⌕ 시리즈 설교 '기다림이라는 공백' 주제 사진

주제 '기다림'은 '침묵'의 다음 페이지처럼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주제 '침묵'에서는 하나님의 침묵과 나의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면, '기다림'이라는 주제에서는 삶의 공백의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는 중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던 40일의 시간 동안,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을 만들 어냅니다. 몇십 일이나 계속된 기다림을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기다림의 순간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이라는 공백을 만드시는 이유는 이 공백의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되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견디는 것이 기다림의 공백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괴로움의 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 순간이 무한한 기다림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친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나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이 힘들고 지치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바로 알며,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였는지, 나의 기다림은 무엇을 위한 기다림인지 바라보며 묵묵히 버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Q&A

신앙인의 건강한 감정과 관계 맺기 <한민 전도사 편>

글 조희성 청년기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싶은 순간이 우리를 찾아온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관계의 딜레마. 선을 넘는 말과 행동으로 나를 지치게 만드는 지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과 ‘건강한 경계’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할까?

그래서 이 어려운 질문을 들고 한민 전도사님을 찾아갔다. 사랑과 미움, 인내와 손절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한민 전도사님이 건네는 지혜로운 처방전. 지금부터 그 대화의 문을 연다.

김건동 청년 온화함 뒤에 찾아오는 감정의 파도를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한민 전도사 저도 사람인지라 바쁘고 지치면 평소엔 너그럽게 넘어가던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아, 또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가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저희 집 서재 구석 모서리에는 십자가가 하나 걸려 있고, 그 아래에는 기도의 책상과 방석을 항상 세팅해 놔요. 그 자리가 잃어버린 사랑과 감사를 찾게 하는 ‘감사 회복소’입니다. 십자가를 그냥 보고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는 제 죄인 된 모습을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그럼에도 저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도 늘 함께 떠올라요. 그러고는 ‘아,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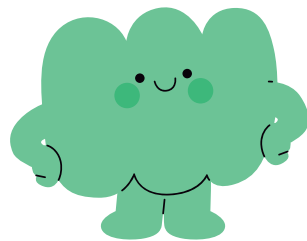
결국, 기도는 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시간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기도의 가장 큰 의미예요. 그게 제가 다시 비교적 온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새가족팀 식구들



⌞ 김건동



이세하 청년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셨을 때와 가장 마음 쓰였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한민 전도사 저는 청년 사역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청년들이 설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실제 삶에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을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양육과 목회 돌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할 것이 많은 이 시대에 이렇게 주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반대로 가장 마음이 쓰일 때는 청년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 있을 때입니다.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가슴이 턱 막히고, 아무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결국 기도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옆에 있어 주는 것’이 때론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청년의 옆자리를 지키는 일, 그 자리에서 “너 혼자가 아니야.”라고 눈빛으로 말해 주는 일, 함께해 주는 일이 제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실제 삶에서 ‘변화’를 선택하는 청년 리더들



⌞ 이세하

이지웅 청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다름’을 넘어 ‘하나 됨’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동체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한민 전도사 제가 청년부에 부임했을 때 첫인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 청년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지?” 하고 놀랐거든요. 저는 처음 우리 교회에 방문한 새가족들을 만나 교육하는 시간마다 이렇게 자부심 가득하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 오시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사랑을 듬뿍 받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게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서운함과 오해가 생기고 심지어는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은 죄인 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씻기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다름을 이유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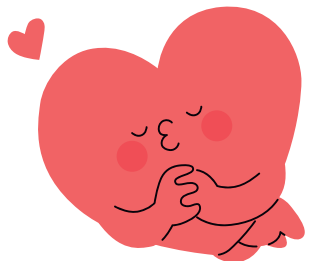
결국 다름을 넘어 하나 됨으로 가는 길은 사랑의 빛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너를 용서하고 품겠다.”는 고백이 공동체 안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임을 믿고 실천하는 청년들



⌞ 이지웅(왼쪽은 차선우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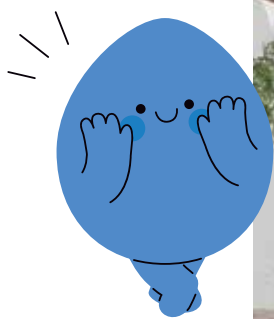


임수민 청년 결혼이라는 삶의 큰 변화를 통해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지향점에 어떤 새로운 깊이가 더해졌는지 궁금합니다.

한민 전도사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동역’에 대한 마음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바쁘고 지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아내를 보면서 다시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곤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거울 같은 동역자’를 주신 셈이죠. 제 모습이 흐릿해질 때, 옆에서 다시 주님 쪽으로 초점을 맞춰 주는... 영적 자동 초점 기능이라고 할까요? :)

결혼은 청년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는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나 결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조금은 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죠.

또 하나의 바람은 제가 배우자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청년들에게 '결혼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결혼은 기쁨입니다. 결혼은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ㄹ 결혼을 하면서 '동역'이라는 귀한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았다



ㄹ 임수민

양성은 청년 '이웃 사랑'의 명령과 자신을 지키는 '건강한 경계' 사이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한민 전도사 이웃 사랑은 분명 예수님의 명령이에요(마태복음 22:39).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무한 책임제'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끝까지 도와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내 영혼은 이미 방전 상태인데도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결과는? 나도 지치고 사랑의 마음이 사라질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진짜 최종 목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시편 23:1). 우리는 양을 인도하는 조수 목자일 뿐이에요. 조수가 아무리 애써도, 결국 주인이 오셔서 보살펴야 진짜 안전해지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최선을 다해 하되, 내 한계를 인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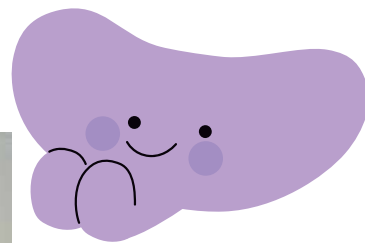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임을 믿고 맡기기.



ㄹ 한민 전도사에게 기도란,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사선'에 맞추는 가장 귀한 시간



ㄹ 양성은



청년 여러분, 건강한 경계는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속할 힘을 남겨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무거울 땐 '내가 이 사람의 전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는 대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사람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세요. 제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부분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순간,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가고, 사랑할 여유가 다시 생길 거예요. 결국 경계는 내 힘으로 다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문 화 & 독자 마당

사랑

당신의 빛이 될 거예요
당신의 길이 될 거예요
당신의 빛이 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가 될 거예요



윤민식 作



작가 노트

그림을 그리기 전 세 번의 밑 작업은 우리의 죄 사함의 과정이다. 먼저 순결한 아담을 상징하는 하얀 캔버스 위에 검은색 물감을 칠하는데,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물든 것을 상징한다. 그 뒤 보혈을 의미하는 붉은색 물감을 아담의 죄 위에 덮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인간을 담아내기 위해 흰색 물감을 칠하고 본 작업을 시작한다.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 번거로운 작업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나만의 믿음의 고백이다.

파이프오르간 연주자, 김계원 전도사 (하) 오르간, 웅장한 하나님의 노래

글 김형수 기자



⌘ 장신대 한경직기념예배당 파이프오르간 반주

1. 파이프오르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악기의 왕’이라고 불리는 파이프오르간은 다양한 음색과 웅장한 소리를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로부터 종교 음악(예배 시)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프린시펄’이라고 하는 파이프오르간 특유의 음색이 있고, 그 외에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 음색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조합으로 다양한 소리와 공간에 따른 울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또한 매력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있는 오르간은 파이프오르간이 아니고 전자오르간으로, 파이프오르간을 모방하여 만든 악기입니다. 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은 교회와 학교에서 파이프오르간보다는 전자오르간을 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파이프오르간을 접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서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전자오르간으로 연습하다가 드디어 파이프오르간을 만나게 되었죠. 당시 전자오르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천상의 소리’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파이프오르간에 푹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서든 파이프오르간을 만나면 다른 악기가 결코 줄 수 없는 그 황홀한 소리에 스스로 도취되어 연주하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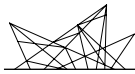
2. 주님의 연주자로서의 비전

주일 예배 반주에 앞서 늘 하는 몇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먼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저의 모습을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르간 반주에 임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의 예배 반주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르간 반주를 듣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에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서원 기도를 했고, 지금도 오르간에 앉을 때마다 그 마음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요, 부족한 자라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좇아 훈련받고, 하나님의 일꾼이자 도구로서 사역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못할 것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로 귀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영락교회 국제예배 오르간 반주 중



신경림 「장날」 사라져가는 것들

글 김은숙 권사(수필가, 필명 김지형)

장날, 하면 왠지 풍요롭고 푸근한 인심이 떠오른다. 옛날 가난했던 시절에도 장날만 되면 새벽부터 마을은 술렁대고 활기를 띠며 부산스러웠다. 날이 저물어 아버지가 돌아올 때는 언제나 불과한 열 굴에, 손에는 어깍없이 자반 한 손이 들려 있고, 둘러맨 망태에는 풀빵이나 과자 꾸러미가 들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나저제나 장에 간 아버지를 기다리며 문밖을 서성인다.

빠른 시대의 변화 속에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이 동네마다 자리 잡고 있어 특별히 장날을 정할 필요도 없어진 도시의 아이들에겐 먼 옛날얘기로만 들릴 뿐, 지금은 사라져가는 소박한 풍경들이다. 물론 근소 도시에 5일장이 열리는 하지만 그 옛날의 정취와는 거리가 있다.

“어릴 때 내가 좋아하던 일은 장 구경이었다. 장날 아침에는 지름길을 마다하고 일부러 장터로 돌아 학교엘 갔다. 교문 앞이 말하자면 장의 중심지였다.”

옛날 장터 풍경을 그림 보듯 서경적敍景的인 작법으로 완성한 신경림(1936~2024) 시인의 수필 「장날」은 독자의 마음에 따스하고 정겨운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고향인 충주 노은면에서 어릴 적 교문 앞까지 장이 서는 날이면, 작가는 지름길을 마다하고 일부러 장터로 돌아서 등교할 만큼 장 구경을 좋아해서 학교에 지각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잡화전, 포목전, 책전이 늘어서, 공터에서는 약장수가 기타를 치며 호객을 하고, 어린 처녀는 약장수 가락에 서투른 유행가를 부르고 있다. 이 모든 것에 마음이 들떠 오후 수업은 영 뒤송송해서 엉망이었다고 회상한다. 친구들 가운데 술집을 겸한 여인숙집 아들은 장날이면 밀려드는 장꾼들에게서 얻어들은 지식으로 공부는 못했어도 세상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참 많아, 아이들 사이에 대장으로 군림했다. 고만한 세대 아동들의 심리를 그려낸 안목이 재미있게 읽힌다.

장 구경을 좋아했던 유년기의 취미는 훗날 작가로서의 바탕에 큰 밑거름이 되어 「농무」, 「목계 장터」, 「가난한 사랑의 노래」, 「파장」, 「갈대」 등 순박한 민중의 마음을 표현한 걸작들의 발상에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유명시인이 되어서도 일요일만 되면 무작정 집을 나와 이 고장 저 고장을 돌아다니며 장터를 어슬렁대었다고 한다.

“옹기전 부근 땅바닥에 즐편히 퍼지르고 앉아 개피떡을 사 먹기도 한다. 목로에 앉아 막국수로 점심을 때우기도 한다. 여름이면 과일전에서 참외를 깎는 재미도 또한 한 맛이였다. 이렇게 해서 어릴 적의 취미를 되 갖게 된 셈이다.”

이 얼마나 소박하고 정겨운, 사람 사는 향기인가!



장날 풍경



« 장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좌판 행상, 없는 거 빼곤 다 있는 정겨운 먹거리 앞에는 으레 주름진 손마디의 할머니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전영의 기자

“..... 어느새 긴 여름 해도 저물어 /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기 한 마리 들고 / 달이 환한 마차길을 절뚝이는 파장”

시 「파장罷場」의 결말 부분이다. 장날 귀가하는 가난한 농민의 모습이 쓸쓸하고 고독해 보인다.

나도 어려서 겪었던 시골 장날 파장 무렵의 어수선하고 삭막했던 분위기가 떠오를 때가 있다. 네다섯 살, 6.25전쟁 피난길이었다. 전쟁의 와중에도 장은 섰나 보다. 어느 날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가다 어머니의 발길이 닿은 곳은 안성 장터였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그날이 마침 장날이었다. 파장이 가까웠는데 어느 길가 행상에서 국밥 한 그릇을 돌이 나눠 먹은 후, 어머니는 내게 리본 달린 빨간 고무구두 한 켤레를 사주셨다.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릴세라 가슴에 품고, 어느 포목전 빈 평상에서 단잠을 잤던 기억이 가슴 아리게 스쳐 간다.

“머지않아 장이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심심치 않게 나돈다. 닳새에 한 번씩 농민들로 하여금 마음이 들뜨게 하는 장날은 농민들의 합리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마땅히 없어져야겠다는 말들도 한다.”

이 무슨 궤변인가.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을 없애야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장날에 대한 향수가 깊은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로의 고달픔을 얘기하고 서로 위안을 받기도 하고, 함께 그들을 고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지게도 되는 장날, 그래서 역시 장날은 있어야겠고, 나는 장이 서는 이웃 고장을 어정대야겠다.”

작가의 의미 있는 이 결말 부분에 나는 물론, 많은 독자들도 공감할 것이다.

행주나루와 행주산성

글 & 사진 이수인 기자

고양시를 대표하는 유적지, 행주산성(幸州山城)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이 거둔 3대 대첩지(행주, 한산도, 진주) 중 한 곳이다. 당시와 조금 바뀌기는 했어도, 지금도 여전히 강변에 돌출된 강력한 산세와 주변과의 어울림이 유지되고 있는 역사유적지다.

행주산성 주변의 교통

행주산성을 둘러보기 위해서는 일단 행주산성 주차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의선 능곡역에서 행주산성으로 가는 대중교통편으로 11번 버스가 있지만, 배차 간격이 1시간이라서 이용하기 불편하다. 방문자들은 대개 자차를 이용한다. 행주산성 정문 앞에는 2개의 주차장이 있고, 행주나루에도 넉넉한 주차공간이 있다.

행주산성 내부와 조망

행주산성 북쪽의 주차장을 지나서 정문인 대첩문에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권율 장군 동상이 있다. 그 옆으로 이어지는 낮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권율 장군을 기리는 사당인 충장사(忠壯祠)가 나온다. 다시 계속 오르막길을 이으면, 왼쪽 작은 골짜기 너머로 산자락을 타고 도는 토성벽을 보게 된다. 여기를 따라가도 되지만, 오던 길을 계속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행주대첩 기념관’이 나온다. 그곳을 지나면 드디어 행주산성 최정상부가 나온다. 거기에도 기념관 하나와 또 여러 기의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다. 사방으로 트인 조망 속에서 행주산성이 갖는 전술적 가치를 분석하기에 좋다.



↗ 행주대첩을 기리기 위해서 가장 오래 전에 세워졌던 최초의 대첩비. 비각이 세워지기 전 오랜 세월을 비와 바람 등에 깎여 현재 비면의 글씨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 대첩문을 들어서면 우측으로 바로 보이는 권율장군 동상. 동상 뒤쪽에 대첩 당시의 극적인 전투장면들을 부조로 새겨서 둘렀다

↗ 행주나루 표지석에 앉아 강심을 바라보면 수많은 생각들이 강물을 따라서 밀려 왔다 흘러 간다



↗ 행주산성 역사누리길은 한강과 행주산성 사이로 길을 이은 새로운 역사탐방 코스다



↗ 행주산성 전체를 통털어 가장 높게 세워진 행주대첩비. 비면의 幸州大捷碑 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글씨다



강 건너 남쪽으로 바로 보이는 산은 개화산이다. 그리고 강 건너 상류 쪽으로 보이는 산 하나가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지은 허준(許浚, 1539~1615)과 우리 고유의 화풍인 진경산수의 화가 정선(鄭善, 1676~1759)의 연고지인 양천 공산이다. 개화산 서쪽으로는 멀리 김포시 지역이 보이고, 그 남쪽으로는 계양산이 당당한 모습을 뽐내고 있다.

행주나루 또는 행호

지금 행주산성의 서쪽 행주대교와의 사이 평지가 옛 행주나루 범위였다. 강폭이 넓어서 나루의 입지가 좋았고, 물흐름이 완만하면서 풍경이 매우 뛰어나 ‘행강(幸江)’이 아닌 ‘행호(杏湖)’로 불렸다고 한다. 이곳 행주나루터 마을에는 행주서원 등 옛사람들의 생활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행주산성 주변의 먹거리

행주나루 주변은 회식촌으로서의 오랜 역사가 쌓인 곳이다. 대강의 분포 권역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개의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행주산성 주차장에서 행주대교 동쪽 너른 공간 안에는 한정식과 장어집을 포함한 아주 다양한 음식점들이 성업하고 있다.

둘째, 행주산성의 동북쪽 공간에도 국수 맛집 등 여러 식당이 영업하고 있다.

셋째, 만약 전통의 웅어회와 웅어 요리를 맛보고자 한다면 능곡역 앞 ‘행주장어(031-974-2052)’를 추천한다. 2대째 가업으로 웅어 요리를 해오는 전문식당 집이다.

124일째, 아들을 그리며

글 이준희 권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에 아들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어찌 그리 4개월이 빨리도 지나갔는지요.
아들의 삶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굵고 짧은 35년의 삶이었지만
아름답게 사랑을 심어 주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에 입성했고,
주님께서는 아들의 삶이
고난 속에 핀 꽃이고, 사랑이고, 기쁨이고, 웃음이라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그리웁습니다.
많이 그리웁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아들이 나에게 남겨두고 간
“엄마 사랑해, 엄마 미안해”
사랑과 기쁨과 웃음을 많이 주고 간
삶이 그리워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이렇게 이쁜 아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사랑을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 종민아,
너는 주님과 함께
더 아름답게 피어나거라.
너는 이 엄마의 마음속에
이쁘고 단아한 4월의 목련꽃으로
항상 피어 있을 거란다.
아들아,
엄마 이름은? 이준희
아빠 이름은? 윤문원
니 이름은? 윤종민
동생 이름은? 윤보라
아들, 또박또박 말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내 아들 윤종민.~♡♡♡

2025년 8월 4일
아침 8시 50분, 124일째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 이준희



« 시간이 멈춘 듯, 아들은 올 초의 모습
그대로 내 마음속에 있다

우리 교회 7교구 김진우 목사님

글 박양희 권사

지난 6월 5일 목요일. 초여름 날씨였다. 무더웠다. 아침 10시, 7교구 김진우 목사님과 함께 동생 박철 성도의 집을 방문했다. 예배를 드린 후, 인천 을왕리로 출발했다. 동생 박철 성도는 14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골든 타임을 놓쳐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중보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 현재 오른쪽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비된 상태이고, 언어도 자유롭게 못해 2급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목사님께서는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으셨다. 동생은 “바다”라고 답했다. 예전엔 바다낚시를 좋아해 매주 전국의 바다를 누비며 배를 타고 낚시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고,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권유도 뿌리쳤다. 그러던 어느 날, 전라도 부안 앞바다 한가운데서 뇌출혈로 쓰러졌고, 헬기로 이송되었지만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난 후였다.

그런 동생을 위해 목사님께서 휠체어를 손수 밀어 바닷가로 향하셨다. 15년 만에 바다를 본 동생은 철없이 좋아하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바닷가 돌레길은 휠체어를 끌기에 쉽지 않은 길이었다. 차에 오르내리는 것도 힘든 동생을 온몸으로

로 부축하며 다정하게 섬기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참 따뜻했다. 식사 때도 그 뽀뽀한 몸으로 걷기조차 어려운 동생을 목사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위로와 힘을 건네주셨다. 커피 타임. 멋진 카페 앞에서, 나는 죄송한 마음에 목사님께 말씀드렸다.

“카페에는 들어가지 말고 차에서 마시는 것이 좋겠어요, 목사님!”
“오랜만의 외출이신데 카페도 얼마나 가보고 싶으시겠어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실 텐데. 가십시오.”
목사님은 휠체어를 끌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로 동생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마치 가족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목사님을 보며 목사님이 단순히 교역자가 아니라 진짜 ‘식구’처럼 느껴졌다.

우리 교회 김진우 7교구 목사님.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그때 경향이 없어 미처 사진을 찍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 교구 식구를 교역자를 넘어 ‘가족’으로,
마음으로 섬기시는 김진우 목사님

'성경 컬러링 이벤트' 선정작 4점

지난호 이벤트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컬러링 참여작 중 4점이 선정되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을 색칠하면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배운 내용이 생각났어요. 저도 앞으로 하나님의 발뒤꿈치라도 잡는 하나님의 성실한 어린이 군대가 되고 싶어요.

백에서 학생(초등4부)

내가 야곱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었을까? 환도뼈를 다쳐도 놓지 않는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아야 한다. 나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한다.'

양시내 성도



사기꾼인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처절하게 천사와 싸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뻔뻔스럽고 염치없는 죄인 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와 겨뤄 주시는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천국은 야곱처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데 사탄의 참소와 상관없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강영희 권사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김일녀 권사

“91세 되신 저희 어머니께서 정성껏 색칠하신 그림입니다. 풀밭 사이사이에 꽃을 그려 넣어 더욱 예쁘게 꾸몄습니다.”

김일녀 권사, 며느리 허인경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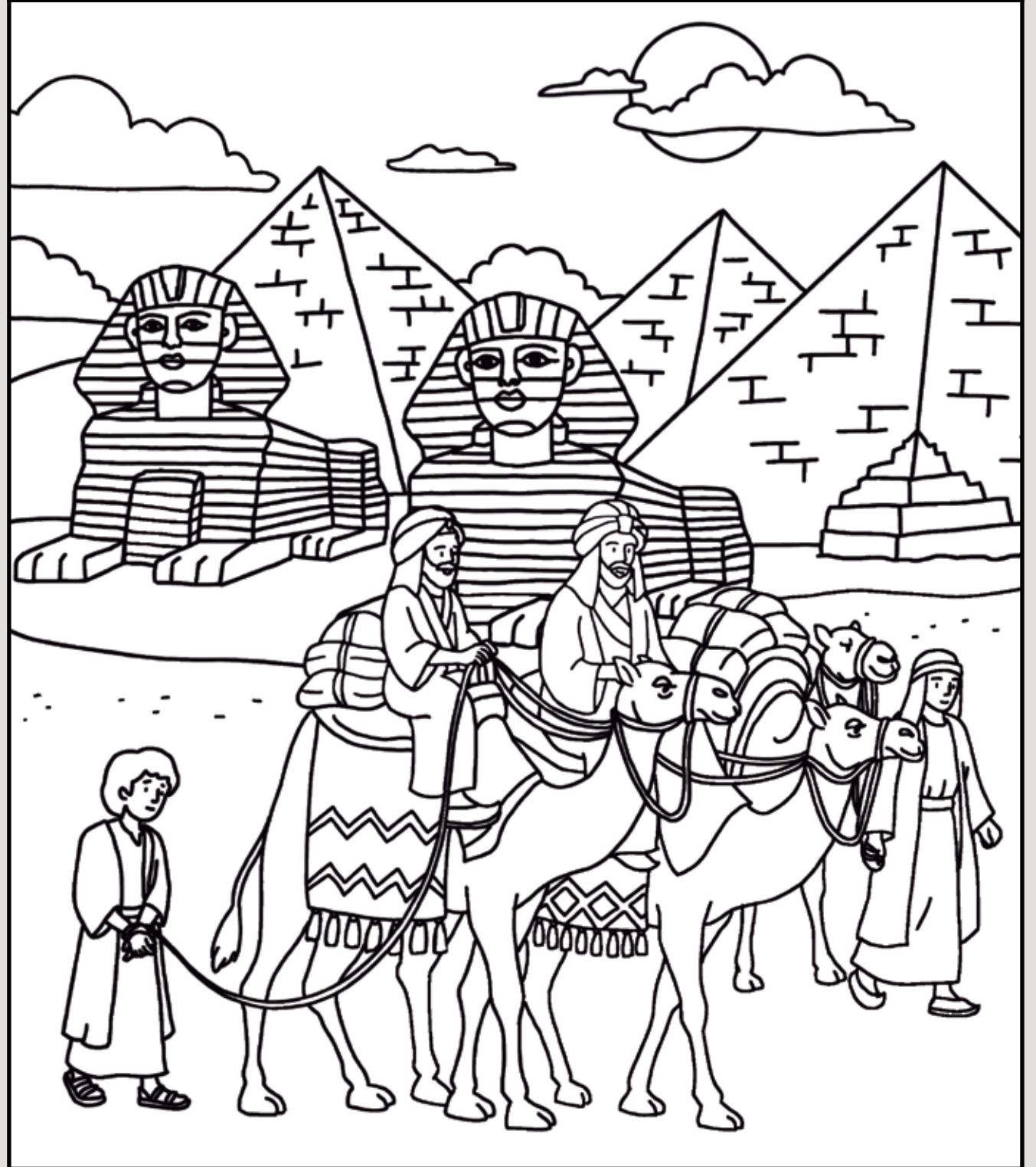


성경 컬러링

도안을 예쁘게 색칠하여 자신만의 컬러링 작품을 완성해 보세요.

완성작을 사진으로 찍어 『겨자씨』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우수작을 선정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이집트로 간 요셉



컬러링 미션 마감: 2025년 11월 5일 | 보낼곳: 010-8025-0549 | 참고: 성함, 연락처, 색칠하며 느낀 점도 알려주세요. 도안 조혜리



BOOK AND BOOK

정리 강혜미 기자



하나님의 섭리

저자 : 차순덕 | 216쪽 | 15,000원 | 출판사 : 예영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깨달은 완전한 섭리를 담은 영적 성찰집이다. 예배, 여호와 이레, 진리, 고난, 회개, 성결 등 신앙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저자의 경험과 묵상을 통해 전한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안내한다. “주님, 무슨 일이든지 주어지면 하겠나이다.”라는 고백처럼 독자 역시 부르심 앞에 서서 순종하는 믿음을 새롭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하마터면 직업목사로 살 뻔했다

저자 : 김상수 | 224쪽 | 15,000원 | 출판사 : 샘솟는기쁨

목회자의 소명과 복음의 본질을 되짚으며,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선교적 삶’의 의미를 전하는 목회 에세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말씀 강의를 통해 칭의와 성화, 예배와 부르심, 그리고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사명을 깊이 있게 다룬다. 저자는 자신의 목회 여정 속에서 경험한 솔직한 고민과 깨달음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삶의 방향과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독자를 이끈다. 믿음의 본질을 새롭게 붙들고 싶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영적 자극을 준다.



살다

저자 : 장춘옥 | 248쪽 | 15,000원 | 출판사 : 새맘출판사

의식주를 성경적 시선으로 풀어내며 우리가 무엇을 입고, 먹고,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를 신앙적으로 성찰한 책이다. 「입고 살다」에서는 옷이 가진 영적·사회적 의미와 진정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먹고 살다」에서는 성경 속 음식과 절제, 영적 충만함을, 「거기에 살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의 태도와 준비를 다뤘다. 저자는 생활 속 경험과 성경 말씀을 연결해,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 믿음과 직결됨을 보여준다. 물질을 넘어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행복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편지 속에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겨자씨.

2025 AUTUMN
VOL.56

보내실 곳

1023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 2010년 1월 13일 통권 56호

등록번호 : 고양, 라00082

발행인 : 과승현

발행일 : 2025년 10월 19일

인쇄 : 삼정PNB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 031-929-3347

중고등부 취재기자 : 최아인, 태경환, 전하빈, 최은우

청년부 취재기자 : 조희성, 고예남, 김다빈

장년부 취재기자 : 김용기, 전영숙, 김형수, 정은숙, 우주희,

박길환, 임보미, 김은숙, 강혜미, 이수인

사진기자 : 이종수, 이용주

책임편집 : 조희경

표지 및 본문 디자인 : 조혜리, 장예지

편집장 : 전영의

필리핀 어학연수 전문 유학원

다이버인에듀

연령별 맞춤형 연수코스 추천



다이버인에듀
카카오채널



다이버인에듀
네이버카페

“ 왜 영어는 필리핀일까? ”

☆☆가성비 좋은 1:1 영어 수업, 빠른 실력 향상!

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

4대 영역을 선생님과 1:1 집중 학습!



시니어

40대부터 시니어까지
패키지여행 이제 그만!
영어로 소통하며
전세계 자유여행!



대학생

IELTS 및 토플
워킹 홀리데이
해외 취업 준비
자유로운 회화



주니어

단기 가족연수
주니어 캠프
ESL 코스로
영어를 한국어처럼



소통과 섬김이 있는 삶



메주꽃 요양원

- ☑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생활 공간
- ☑ 실·내외 CCTV, 자동 대문, 자동개폐출입문, 넓은 주차장
- ☑ 소수 인원으로 가정 같은 아늑한 분위기
- ☑ 요양시설 전문 영양사의 균형 잡힌 식단
- ☑ 요양기관전문 협력병원 지정으로 촘촘한 의료서비스 구축
- ☑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내포 IC 2분 거리
- ☑ 가정방문간호사, 상주 간호 요원 배치
- ☑ 계약 의사 방문 진료(2, 4주 수요일)

프로그램



치매 프로그램

노래교실
미술교실
이야기교실

여가 프로그램

놀이교실
실버체조
음악감상

인지 프로그램

학습지 활동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진료내용

척추·관절·통증 치료



척추·관절·통증치료

든든한병원



든든한병원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척추·관절
클리닉

+

건강검진
클리닉

+

내과진료

+

운동치료

+

비수술
치료

진/료/내/용

- 정형외과
- 내과
- 건강검진
- 마취통증의학과
- 신경외과
- 가정의학과
- 영상의학과



진료시간 안내

※ 일요일·공휴일은 휴진

- 평 일 : 오전 9:00 ~ 오후 5:30
- 점심 시간 : 오후 1:00 ~ 오후 2:00
- 평일야간진료 : 오후 5:30 ~ 오후 7:30
- 토요일 : 오전 9:00 ~ 오후 1:00
- 내과/건강검진 : (평 일) 오전 8:00 ~ 오후 5:00
(토요일) 오전 8:00 ~ 오후 12:00



오시는길 안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 2로 60 (덕이동 1551)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 제 150804-증-75298호

일산서구 하이파크 2로 60

대표번호 | **1577-9177** |